

SK '에너지 솔루션' 美 태양광시장 공략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JV 설립
SK E&S·SK·SK이노 등 참여
미국 ESS 설치기업 1위 선런과
IT서비스 결합 'ESG경영' 가속

참여기업	SK E&S	SK(주)	SK이노베이션
지분율	53.26	39.97	6.77
설립 목적	미국 가정용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1위 기업 선런과 합작사 설립을 통한 현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 진행		

SK그룹이 에너지 신사업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연합체를 만들어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전통 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 하던 SK그룹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가속하며 혁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에너지 사업자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관련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 E&S와 SK(주),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합작사(JV)인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Energy Solution Holdings Inc.)'를 설립하고 미국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는 SK E&S가 53.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39.97%, 6.77%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는 미국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1위 기업인 '선런'(Sunrun Inc)과 합작사를 설립해 현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도전한다. 애초 SK E&S가 올해 7월 약 1385억 원을 출자해 선런과 JV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도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과 ESS에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IT 서비스를 결합해 전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중앙 전력거래소가 아닌 가정

나 지역 단위의 전력망 속에서 전력의 생산과 거래가 이뤄지는 전력 소비형태인 분산형 전원이 발달해 있다. 분산형 전원을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면 단순히 태양광 및 ESS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전력망 보조 서비스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를 통해 SK E&S는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SK(주)는 IT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은 ESS 등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체의 친환경 사업 확장으로 각 계열사는 ESG 경영을 가속하며 생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ESS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주요 태양광 시장인 미국을 그룹사와 연합해 공략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황이 좋아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속 성장이 예고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5만 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경우 가정용 태양광 발전 및 ESS 시장이 먼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설치비용 하락과 가상발전소(VPP) 사업 장려 법안이 승인되며 내년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추미애 "尹 추가 검찰"…평검사 집단 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부는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추가적 판사 불법 사찰 여부,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평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공시가 16억 아파트 5년 미만 보유시 271만원 올 종부세 대상자 15만명 늘었다

74만 명 중 서울·경기가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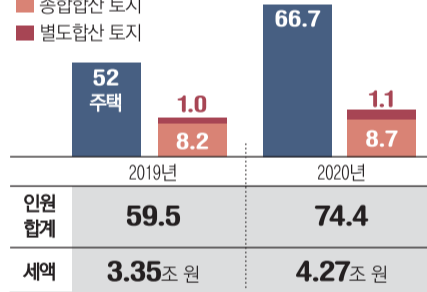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 7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4만9000명 증가했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9216억 원 증가한 4조2687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3면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입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차이가 났다. 공시가 가격이 16억4700만 원 아파트에 사는 A(39세)씨는 보유 기간이 5년 미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단위: 만명)



만이라 종부세가 271만 원이 나왔다. 반면 B(75세)씨는 15년 이상 이아파트를 보유해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아 81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다.

지역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서울이 41만명(2조6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7만 명(5950억 원), 부산 2만 8000명(1361억 원), 대구 2만 3000명(656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지 대상자 증가율은 세종과 대전이 각

각 33.3%, 서울은 30.2%를 기록했다.

고지 세액은 세종이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105억 원으로 56.7%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은 1038억 원에서 1335억 원으로 28.6%, 서울이 1조9951억 원에서 2조6107억 원으로 30.9%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 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는 58.9%에 달했다. 이들의 세액은 1조1868억 원으로는 전체 세액의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는 9만5000명(31.9%), 세액은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했다.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 또한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개인정보 유출' 폐북 檢에 고발

개인정보위, 과징금 67억도 부과
"거짓 자료 제출·조사 방해" 지적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67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개인정보 보호를 동의 없이 유출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비협조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조사 결과 최소 33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8월 개인정보 위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법 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 U+ 새 수장에 황현식... CEO 내부 승진 첫 사례

하현희 용퇴... 계열사 중책 맡을 듯

LG유플러스신임최고경영자(CEO)에 황현식(사진)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이 선임됐다. LG유플러스에서 최고경영자(CEO)로 내부 승진한 첫 사례다.

25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인사 안건을 논의하고 황 사장을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겸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황 신임 부회장은 1999년 LG텔레콤에 입사해 강남사업부장, 영업 전략담당 등을 두루 경험했다. 그 뒤 LG통신서비스팀을 거쳐 2014년에 다시 LG유플러스에 합류했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사업을 이끌며 지난해 LG그룹에서



는 유일하게 사장으로 승진했다.

황 신임 부회장은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로는 첫 CEO 취임 사례다. 20여 년의 풍부한 통신 사업 경험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그룹 안팎의 두터운 인망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LG유플러스가 4G(LTE) 시대 진입 시 업계 최초로 전국망을 구축하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바짝 좁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통신 전문가인 황 사장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부회장은 앞으로 LG유플러스를 이끌며 기존 통신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융복합 사업과 B2B/B2C 신사업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하현희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를 만료하고 용퇴한다. 임기 만료 뒤 공식적인 거취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구본준 고문이 LG그룹에서 분리해 거느리게 되는 LG상사 등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날 부서장 2명, 전문 4명, 상무 9명에 대한 임원 승진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정의선-신동빈 단독 회동 '미래차 신소재 협력' 재계 'K모빌리티 연합전선' 완성

롯데케미칼 의왕 사업장서 면담
경량화 기반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청사진 공유·사업 방향 논의한 듯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주도 중인 '재계 미래 모빌리티 동맹'에 롯데그룹이 가세하면서 사실상 5대 그룹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정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하고 관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의 기존 K배터리 동맹이 미래차 신소재까지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정 회장은 연구개발본부 경영진 등과 함께 경기도 의왕에 자리한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사업장을 찾았다. 정 회장이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측에서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현대차 측 인사를 맞았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정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과 첨단 소재 분야의 협력 범위를 5대 그룹으로 확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롯데케미칼은 의왕사업장에서 자동차 내장재는 물론 의장 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신소재 등을 개발 중이다. 향후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이 될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 회장 역시 신소재 관련 전시설을 시작으로 연구동, 디자인센터 등을 둘러봤다.

전기차 배터리 고효율을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가 중요하다. 이에 정 회장과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신소재 개발 관련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재 외에 배터리에 대한 롯데의 관심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 현대차·연합뉴스

도 지대하다.

롯데는 5대 그룹 가운데 배터리 산업의 외연 확대가 가장 절실한 상태. 향후 주력 사업으로 떠오른 순수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LG와 SK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한편, 삼성이 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3강 구도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롯데의 전략이 이번 회동의 출발점이었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자동차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일본의 '히타치 화학' 인수를 전격 참여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설비 능력을 갖춘 히타치 화학을 인수해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는 일본 '쇼와덴코'에 밀려 실패로 끝났다. 신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월에는 오히려 실패를 안겼던 쇼와덴코의 자본 약 4.7%를 매입하면서 우회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9월에도 배터리 핵심소재를 생산해온 두산솔루션 인수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펀딩도 단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사적 추진력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현재 식음료와 소포, 관광, 레저에 국한된 그룹의 주력 사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순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소재와 기술이 절실하다"며 "공급처를 다양화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공공재개발' 국회서 발목 수도권 주택공급 '빨간불'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계류
연내 법안 통과 사실상 불가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이 시장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마저 제 속도를 못 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5·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의 기본 용적률은 250%다. 일반 재개발은 소형 임대주택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은 360%까지 가능해진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자들의 신성이 쏟아진 건 이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70곳이다.

공공재개발 실행의 밑그림이 담긴 법안이 바로 도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법안 심사마저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 일정상 법안심사 소위가 올해 안에 다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선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이번 법안 내용 중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 건설 비율 등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법안이 빨리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공공 정비사업 계획 '안갯속' = 공공재건축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계획에도 금이 가고 있다. 정부는 8·4 대책 발표 때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사업성 분석 의뢰)을 신청해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추진 단지는 당초 15곳이었으나 지금은 10곳 정도로 줄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발을 빼자 다른 중소 규모 단지들도 신청 철회에 나설 분위기라는 게 정비업계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나마 사업 거부감이 적은 공공재개발은 법안 심사 통과가 지연되고, 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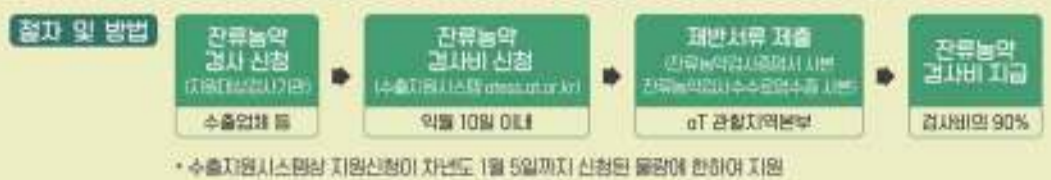
홍콩 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 주요내용**
- 목적(Why)** 딸기 최대 수출국인 홍콩으로 딸기 수출 시 잔류농약 안전성 위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기간(When)** 딸기 주 수출시기(20.11.1~21.5.31,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 대상(Who)** 수출물류비 수령을 희망하는 업체들
- 내용(How)** 수출 전(선적일 기준) aT 관할지역본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함



- 1 수출신고** : 수출업체가 당해년도 수출가능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제출
· 잔류농약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관원 지정 민간 검사기관에서 실시
- 2 수출물류비 신청** : 검사적합(작가중 최소 1회) 농가 수출물류비 한도 신청
· 수출업체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신청한다 (우계이베리(딸기수출물류비조합) 회원사의 경우 우계이베리를 통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신청)
- 3 수출물류비 지급** : 잔류농약검사 합격농가 수출물류비 한도 지급

-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
- 대상**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기간** '20.1.1~'20.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 '21년 지원사업은 '21.1월초 시정공고 예정
- 내용** 수출물류비 지원금액 중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지원(VAT제외)
- 대상분(320성분) 및 단성분 해당 검사비용의 90% 지원
- 수출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지원대상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정기관(무기성분 유해물질 분야)



- aT 지역본부 연락처**
- 서울·경기 031-8060-6013 인천 032-272-3001 강원 033-920-1544
- 충북 043-902-9526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전북 063-904-5874
- 광주·전남 062-940-7015 대구· 경북 053-218-4898 부산·울산 051-947-1084
- 경남 055-274-4813 제주 064-746-9472

공시가 급등에 서울 전역 '폭탄 고지서' 사정권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납부 세액을 받아든 서울·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가량 오른 대상자가 속출했다.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종부세 '두 배' 수준 증가=2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 대표 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의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81만 원보다 약 76% 증가한 금액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14㎡형은 올해 종부세가 694만 원으로 지난해 402만 원보다 약 73%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는 60세 미만으로 집을 5년 미만 보유하고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없는 경우로 가정할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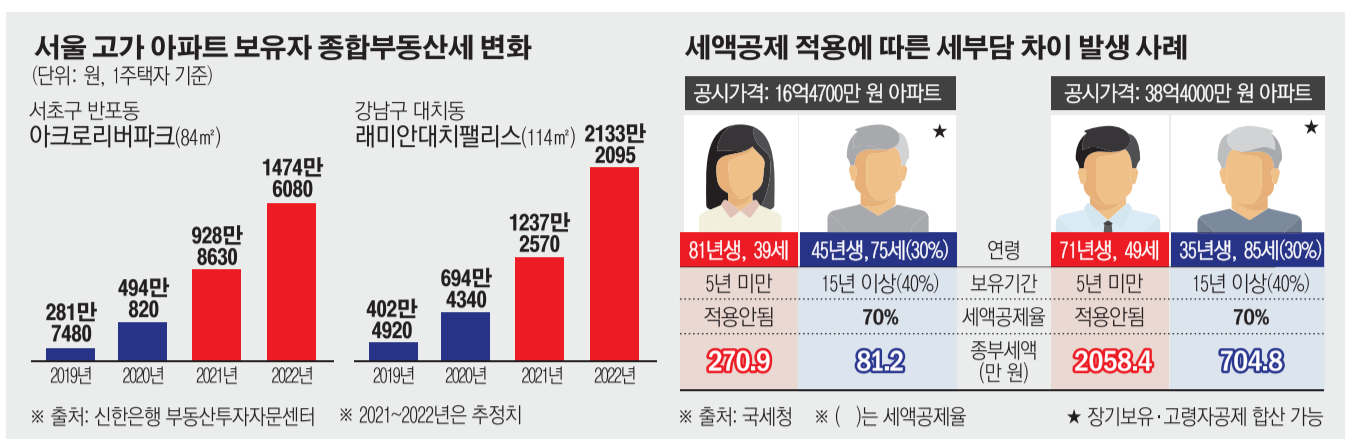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사례도 속속 나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50대 후반의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26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서초 아리팍, 281만원→494만원
종부세 낼 비엔...증여건수 사상 최대
대상자 28% 늘고 세액 70%대 증가
"세금 과도"vs "납부 당연" 여론 팽팽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전용 84㎡형 보유자 역시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45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9억 원 초과 주택)을 넘겼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겼지만, 올해는 강남과 강북권 모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북 아파트 보유자 역시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국제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39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2% 늘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1조1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28% 증가한 6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월급 수준' 종부세에 증여↑=일부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1만9249건으



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의 11만 1864건이었다. 올해가 아직 두 달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증여 건수는 12만 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를 차

지했다. 서울과 전국 아파트 거래 원인 중 '증여' 비중은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까지 부담이 커졌다. 주택 보유자들의 불멘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자 자유도 없습

니까?' 글쓴이는 "은퇴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적폐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역시 종부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세금 폭탄' 내년이 더 문제

서울 인상·공시가 추가인상 겹치면 올해 490만원... 내년엔 1000만원

(서초 아리팍 전용 84㎡ 종부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형)에 살고 있는 40대 김모 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집을 산 지 3년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김 씨의 올해 종부세 부과 금액은 490여 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281만7480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나마 올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걱정이다.

'종부세 폭탄'은 과장이 아니었다. 고가 주택 보유자,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27.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서울이 인상되는 데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핵폭탄' 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상에 보유세 부담 상한도 ↑=국제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된다.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은 300%로 오르고 법인 소유 주택분의 상한은 아예 없어진다.

2021년 귀속분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필 세

종부세 세율 개정

(단위: %, 2021년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개인 법인	현행	개정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0.6	1.2
3억~6억 원	0.7	0.8	0.9	1.6
6억~12억 원	1.0	1.2	1.3	2.2
12억~50억 원	1.4	1.6	3	6
50억~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무사는 "여기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공시가격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세액은 올해 2배 상승분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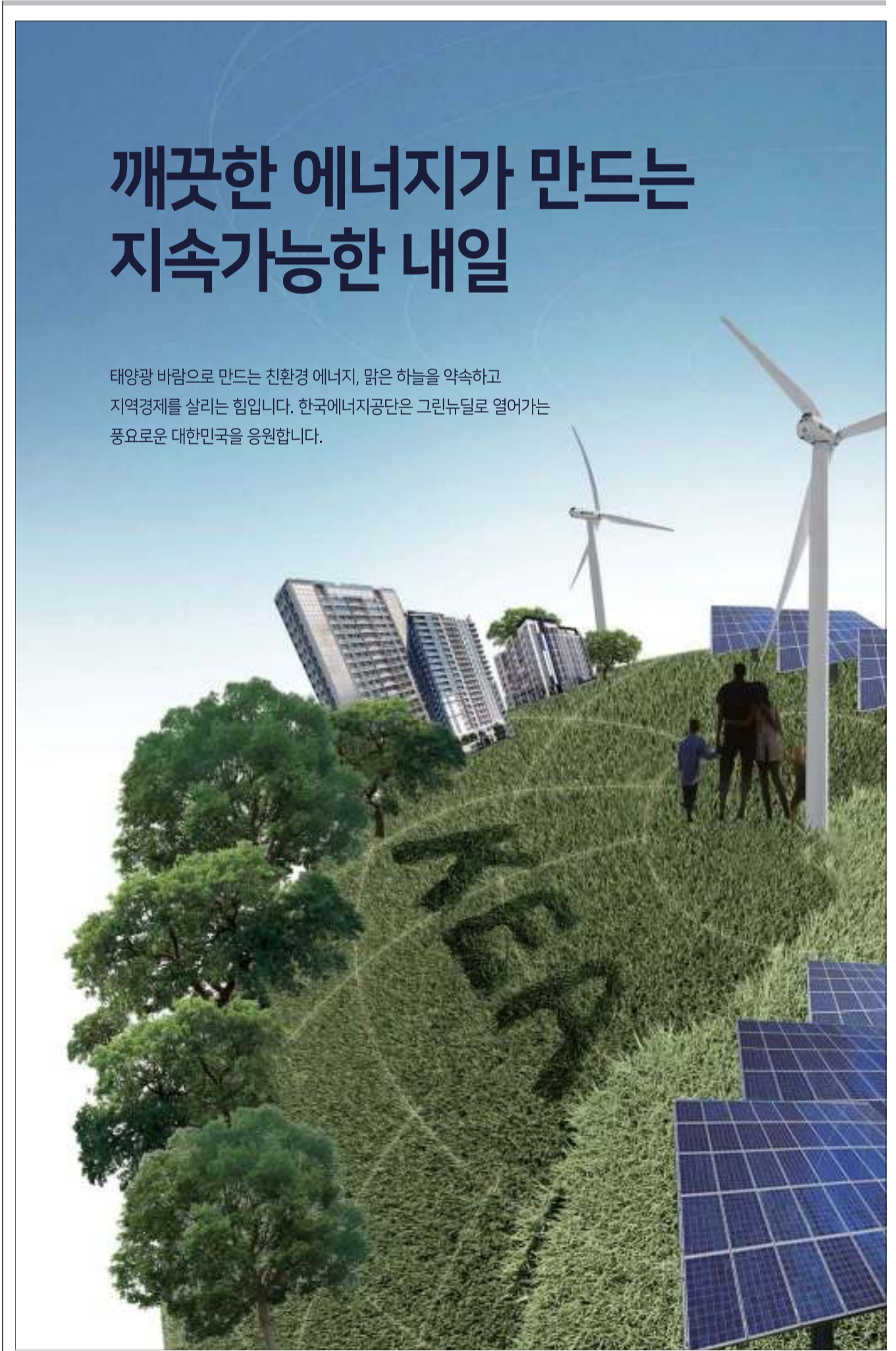
◇중저가 아파트들도 세부담에 '회성' = 문제는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될수록 이 같은 사례는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 래미안 e편한세상'의 실거래가격은 현재 12억 원 수준인데 공시가격은 6억 원대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며 "서울 인상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깨끗한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태양광 바람으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맑은 하늘을 약속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로 열어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공포에 사라”... 코로나 팬데믹 비웃는 증시 열기

산타 랠리의 시작인가, 단기 과열인가.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3만 선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미국 정권 교체와 백신 기대감에 이례적인 강세 국면을 이어가면서 이 분위기가 계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초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 다우가 2만 선을 넘기까지 12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2018년 1월 4일 2만5000에 도달하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 10년 만의 최악의 해를 보냈다. 2019년 증시는 강세장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3월에는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침체는 길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커지면서 마침내 다우지수는 ‘3만’이라는 미증유의 고지에 올라섰다. 현재 세

美대선 불확실성 해소·백신 기대
다우지수 3월 이후 62% ‘경총’
“위기 발생이 곧 주식 매수 기회”
투자자 인식이 상승 랠리 이끌어
중앙銀 부양책·초저금리도 한몫

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시는 이에 따른 경제 문제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팬데믹 사태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의 인식과 초저금리 환경이 증시 강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다우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3월 이후 지 금까지 약 62% 올랐다.

우선 WSJ는 경제 위기가 주가 상승의 자양분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하락 국면에서 승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명물 트레이더 피터 터크먼이 24일(현지시간) 거래소 앞에서 ‘다우 3만’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스마트폰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뉴욕/UPI연합뉴스

수를 띄우는 전략이 적중, 현재의 코로나 19 사태를 투자 적기로 보는 인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가 저점을 찍은 2009년 3월과 리세션(경기침체) 우려가 강해진 2011년과 2015년, 2018년에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큰 재미를 봤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양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 의지도 증시 랠리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이번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경제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지금의 초저금리 기조가 최소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채권과 같은 저위험 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주식 인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이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젊은 인구 등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신속한 대응 등은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임박했고, 무역전쟁과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오랫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위험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S&P500지수가 내년 말 43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삼성전자 팔고 테슬라 산 서학개미 ‘함박웃음’

전자 업체 테슬라 시가총액이 24일(현지시간) 시가총액 5175억 달러를 넘어 서며 거래를 마쳤다. 덕분에 원정 투자에 나선 국내 투자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함께 웃었다. 한국인들의 올해 테슬라 누적 매수액은 103억 달러다. 2위인 애플(55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주요 주주인 골드만삭스(보유 지분 0.98%)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결제규모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24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테슬라 주식 103억 달러를 매수했다. 순매수결제 규모도 24억 달러에 이른다. 연초 테슬라에 투자한 서학개미는 약

5분기 연속 흑자·S&P500지수 편입 호재 속 주가 ‘고공행진’
올 들어 500% 수익률...국내 개인투자자 103억 달러 사들여

500%의 수익률을 냈다.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6.43% 급등한 555.38달러로 마감했다. 테슬라는 540.40달러로 출발해 증가 기준 시총 51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비전에 열광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출연해 “테슬라 시가총액은 지금의 5배인 2조 달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한 미국의 억만

장자 론 배런 배런캐피탈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인 ‘테슬라 마니아’로 꼽힌다.

테슬라의 무서운 상승세는 실적과 호재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CNBC방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적을 통해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고했고, 3분기 13만9300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해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되는 ‘경사’로 주가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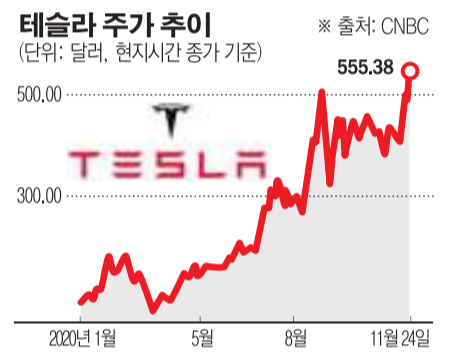
욱 급등세를 탔다.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되는 테슬라의 S&P500 지수 편입에 따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전망이라고 CNBC는 전했다.

반면 개미들은 11월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2조2000억원 넘게 팔아 치웠다.

테슬라처럼 ‘꿈을 파는 기업’의 미래는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맥없이 무너진 정보기술(IT) 업계의 ‘닷컴버블’을 재현하게 될까.

일각에서는 시장이 너무 앞서 간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



로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면서 “빅테크로 표현되는 소수의 기술주 쏠림이 아닌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날 투자과잉(공급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IT버블은 기술의 버블이 아닌 투자의 과잉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낙관보다는 ‘성장주’ 내 차별화 흐름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일을 하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떠난 후에!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 허브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
산재보상
재활지원
의료지원
노동자복지
퇴직연금

秋, 尹 추가 검찰 지시... 평검사 “법치주의 훼손” 집단성명

조만간 징계위원회 소집해 심의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 지명 해임결정 뒤 대통령에 제청할 듯 윤, 징계 확정 후 행정소송 전망 檢통신망 ‘秋장관 비판 글’ 봇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면 검찰 시도가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징계에 돌입한 추 장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애초부터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 30여 명이 추 장관의 집행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성명서를 내고,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조짐을 보이는 등 최악의 ‘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여권 수사 방아쇠 됐다=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 총장 해임

추미애·윤석열 갈등부터 직무배제까지	6월	7월	10월	11월
3월	19일	2일	16일	17일
31일	25일	3일	17일	19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29일	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	19일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대검 접수 거부)
4월	30일	14일	22일	24일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등 요청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전정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윤 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대검, 사실상 불응)
29일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26일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6월				
4일				
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				
14일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전정				

을 위해선 징계 청구가 유일한 방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위촉된다.

추 장관이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론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尹, 반발... 소송전 예고=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지적한 혐의들에 대해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금지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는 시점은 징계위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신청을 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폭발 직전=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연일 들끓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을

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혐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전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했다. 대검 검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보고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

다. 추 장관은 추가 검찰도 지시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희도 청구지급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김중용 기자 deep@

문 대통령 이틀째 침묵

이낙연 “尹 사퇴하라... 국조 추진” 김종인 “민주주의 파괴... 秋 국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데 이어 25일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면서 연말 정국이 공수처와 ‘주요 갈등’의 블랙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날게 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뀌 X이 성난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즐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충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강경 모드로 나서는 점에 대해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으로 당정이 교감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금의 모든 순간

스마트 금융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삶에 맞춘 디지털 금융으로 금의 모든 순간을 편하게, 스마트하게! NH협금융이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수출 끌고 내수 밀고... 이달 기업경기 코로나 이전 회복

제조업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 백신 개발 기대감도 한몫 한은 “개선세 지속”... 한경연 조사 年기준으로 환란 후 최약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어 주면서 기업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제조업은 대·중소기업이나 수출·내수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장기평균치를 넘었다.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백신개발 기대감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 향후 추이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면치 못했다.

25일 한국은행이 전국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11월 전산업 업황실적 BSI는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한 78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80) 이후 2년5개월만에 최고치다. 제조업은 6포인트 오른 85로 2012년 4월(86) 이후 8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제조업은 4포인트 상승한 73을 기록해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1월(73) 이후 가장 높았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각 업체의 응답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낮으면 그 반대 의미다. 다만, 부정적 답변이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인 80전후를 암묵적 기준치로 보고 있다. 실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장기평균치는 각각 79와 75를 기록 중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7)과 중소기업(82)은 각각 6포인트씩 올랐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수출기업은 11포인트 급등한 93을, 내수기업은 2포인트 오른 79를 보였다.

향후 전망을 가능할 수 있는 12월 업황

전망BSI를 보면 전산업은 4포인트 오른 76으로 2월(7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5포인트 상승한 81을, 비제조업은 3포인트 올라 72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2018년 5월(81)과 2월(74) 이후 최고치다.

제조업부문에서는 가전제품 및 전기전자 수요 증가와 반도체 관련 수출 증가, 현대·기아차의 잇따른 신차 출시로 부품판매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부문에서는 건설수주회복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신작 게임 출시, 연말을 앞두고 스킨이 트인 물류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수출이 좋다 보니 제조업이 좋은 모습이다. 비제조

업도 회복세”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봉쇄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업황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백신 개발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예전만큼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연평균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9.3포인트 하락한 81.5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8년(65.2)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이와중에 총파업... 경찰만 고생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당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발대대회'가 열린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경찰들이 집회 참가 인원 통제 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2% 성장... 경제 완만히 회복”

산업연구원 “中 경기회복·주요국 부양책 효과에 반등”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어지겠지만 올해 역성장이라는 기저효과와 내·외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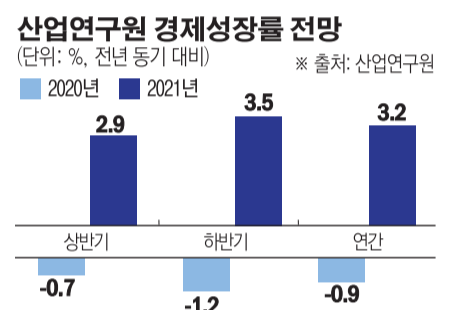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2021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0.9%로, 올해 6월보다 1.0%포인트(P) 낮았다.

연구원은 내년 수출의 경우 각국의 대응력 강화 및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줄고 중국의 경기회복과 주요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 기저효과 등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수출은 5608억 달러로 올해 대비 약 11.2%, 수입 역시 5087억 달러로 약 9.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난 약 52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는 전년도의 역성장이라는 기저효과,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 등으로 3%대 증가세를 예상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12대 주력 산업의 내년 수출 전망의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올해보다 10.6% 증가하는 가운데 정유(17.6%), 자동차(15.2%), 석화(12.2%) 등이 올해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통신기기(9.9%), 반도체(13.1%), 이차전지(5.7%)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와 더불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기계(6.3%), 철강(7.7%) 등은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며,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연구원은 내년 국제 유가를 배럴당 47달러 수준, 원·달러 환율을 1110원 내외로 예상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하루 만에 입장 바꾼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 “본예산 반영... 野와 협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웠다.

야권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여권도 수용 의사를 밝히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

층에게 특별히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권의 보편적

지원이 아닌 직격탄을 입은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조속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회 발행 등으로 본 예산을 순증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신규 확진 400명 육박... “2~3주 내 병실 부족”

사우나·주점 등서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2~3주 뒤에는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82명 증가한 3만17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363명, 해외유입은 19명이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서초구의 사우나 두 곳에서 각각 16명(누적 39명), 9명(누적 7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교회 관련 확진자도 114명으로 15명 늘었다. 서초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13명이 추가 확진(누적 25명)됐으며, 강서구 병원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누적 39명)됐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의 환자도 증가세

다.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6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는 80명으로 7명 각각 늘었다. 경기 지인 여행모임과 관련해선 11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 확진자가 39명으로 6명 추가됐고, 광주 교도소와 관련해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밖에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 확진자가 47명으로 23명 늘었고, 경남 진주시 단체인수사와 관련해선 총 19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환자 병상은 현재까지 여유가 있다. 0시 기준 위중·중증환자는 총 81명이며, 가용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77개다.

순연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되면 2~3주 내에 중환자실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3분기 합계출산율 0.84명... 연간 집계도 0.8명대 전망

20대 후반~30대 초 출산율 푹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집계됐다. 추세상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9월 및 3분기 인구동향’에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0명에서 2분기 0.84명으로 떨어지고, 3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0.85명)과 올해 감소세를 고

려하면 올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 내외, 연간으로 0.8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모(母) 연령별로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 감소세가 가파르다. 25~29세의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은 3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명 감소했다. 30~34세에서도 78.4명으로 4.4명 줄었다. 2018년만 해도 두 연령대의 출산율은 각각 41.0명, 91.4명이었다.

출산 순위별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 구성비는 57.1%로 0.9%포인트(P) 확대됐

으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34.8%로 0.6%P, 8.2%로 0.3%P 축소됐다.

혼인 건수도 감소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2분기(-16.4%)에 이어 3분기(-11.0%)에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9월 출생아 수는 2만356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2%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4361명으로 3.4%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증가는 795명 순감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1만5324건으로 3.0% 줄었으며, 이혼은 9536건으로 5.8%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우리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경기장에 설 수 있는 '기회'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 NC다이노스 2020 통합우승 |
Never Ending Challenge



사우디-이스라엘 '해빙' '新사업' 노리는 기업들

美 중재... 비밀리에 첫 정상급 회담 구글, 인-유럽 잇는 해저케이블 계획 펠북 '아프리카' 사우디 포함 타진



베냐민 네타냐후(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 압둘라티프 바레인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연합뉴스

적대적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 무드가 감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붙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2일 사우디 황해 신도시 '네움'을 비밀리에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이륙한 제트기가 사우디 네움에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회담을 인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회담 자리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시 코헨 국장과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8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등과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9월 이스라엘과 바레인, UAE 등 3국이 평화외교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달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스라엘 평화 사절단과 함께 바레인을 방문해 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 긴장 관계에 있는 이란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외교 관계가 없었던 양국 최고급 지도자가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걸프 국가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슬람 수니파 중주국으로 대변되는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중동

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다. 양국은 경제면에서의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우수한 반면, 사우디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어서다.

양국의 역사적 만남에 글로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WSJ는 구글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광통신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해당 작업은 인도와 유럽을 잇는 '블루리안'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상됐다. 이를 위해선 케이블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국경을 넘나들뿐더러 각국의 통신 규제 정책이 다르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프로젝트엔 5000만 마일(약 8000만km) 이상의 해저 케이블이 동원되며, 비용만 4억 달러(약 4429억 원)로 추산되고 있다. WSJ는 "블루리안 프로젝트는 걸프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외교 및 상업적 관계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이스라엘을 거쳐 중동까지 연결되는 통신망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아프리카에 2만3000마일의 케이블을 설치하는 '2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유럽 통신망인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가 중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엘런과 함께 '강달러' 돌아오나

클린턴부터 오바마까지 "강달러는 미국의 힘"... 바이든도 이어갈 듯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차기 재무장관에 낙점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와 동떨어진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자주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강한 통화는 아름답지만 미국의 수출에는 부정적",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달러 값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종합한 블룸버그 달러스팟인덱스는 3월 이후 11% 이상 하락했다.

여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에 연준이 향후 수년간 기준금리를 제로(0)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자신의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달러 정책이 명확해져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투자자들은 바이든과 옐런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달러 약세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이 다시 일관된 기조로 돌아오면서 강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빌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는 "강한 통화가 미국 경제의 힘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메들리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글로벌 거시전략 대표는 "옐런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달러는 강세였다"며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일관된 달러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차기 재무장관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

은 공개 서한에서 "미국은 이제 클린턴 정권 시대에 확립한 강달러 정책으로 회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화 강세는 해당국에는 양날의 검이다. 한국은 강달러를 선호한다. 한국은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국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 실적도 크게 개선된다. 다만 강달러는 수입 물가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애기가 달린다. 주식 매입 시점보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지점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마지막 '칠면조 사면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사면식에서 칠면조 '론'에게 손을 얹으며 사면을 명하고 있다. 사면받은 공은 식탁에 오르지 않고 형제 '팝'과 아이오와주립대 동물과학장으로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행사에서 농담을 던졌지만 이날은 "추수감사절은 칠면조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아주 좋은 날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는 사라져선 안 된다"며 "미국의 위대함을 위해 목숨을 건 군과 법조계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효과 95%라고?...푸틴도 안 맞는 러 백신

"국가 정상이 임상시험자 될 수 없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효과에서도 미국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산 백신 접종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으로 알려진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국방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는 이날 "스푸트니크V의 임상 3상 시험 중간 분석 결과, 예방 효과가 91.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RDIF는 "첫 번째 접종 후 28일, 두 번째 접종 후 7일째에는 백신 효능이 91.4%로 나왔지만, 첫 번째 접종 후 42일, 두 번째 접종 후 21일째에는 95% 이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더 높다.

RDIF 측은 "브라질과 이집트, 멕시코 등 20개국이 러시아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며 "12억 회분을 주문했다"고 했다. 스푸트니크V의 가격은 회당 10달러(약 1만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러시아 국민은 무료로 2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스푸트니크V를 맞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상 시험 참가자가 될 수 없다"며 "인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인증된(certificated) 백신과 승인받은(approved) 백신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백신 접종에 관해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는 스푸트니크V 백신을 승인하면서 일반인 대상 접종을 허가했지만,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다. 앞서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내년부터 일반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기도 전에 승인을 받아 안전성 우려가 여전하다. 최혜림 기자 rog@

獨 베르텔스만 '글로벌 No.1 출판사' 초읽기

S&S 인수자로 최고액인 20억 달러 이상 써내... 머독 이끄는 '뉴스코프' 제압

글로벌 출판시장에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을 추월하는 공룡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핑귐랜덤하우스를 소유한 독일 출판그룹 베르텔스만이 미국 저명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S&S) 인수가 유력해 보인다.

머독의 뉴스코프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비방디도 S&S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베르텔스만은 최고가인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이상을 써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S&S 모회사인 비아콤CBS가 설정한 최저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비아콤CBS는 할리우드 스트리밍 전쟁에 뛰어들면서 출판 부문을 비핵심 사업으로 간주, 3

월에 S&S를 매물로 내놨다.

토마스 라브 베르텔스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S&S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사모펀드의 공동 인수 제안을 뿌리치고 홀로 인수전에 나섰다.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베르텔스만은 매출 기준으 미국 출판 시장의 3분의 1을 쓸어 담으며 세계 최강 출판사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는 뉴스코프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 5대 출판사 중 하나인 S&S는 연간 약 2000권의 책을 출간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위대한 개츠비'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와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문학계 거물들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

해 쓴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와 '격노(Rage)'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의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 등 베스트셀러작을 연속 출간하며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출판사 하퍼콜린스를 보유한 뉴스코프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S&S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베르텔스만이 제시한 액수를 보고 백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으로 출발한 온라인 유통 공동 아마존닷컴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출판시장이 격변한 상황에서 전통 강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응에 나서면서 출판업계에도 지각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감원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금지령에도 "일단 팔고 보자" 열 올린 보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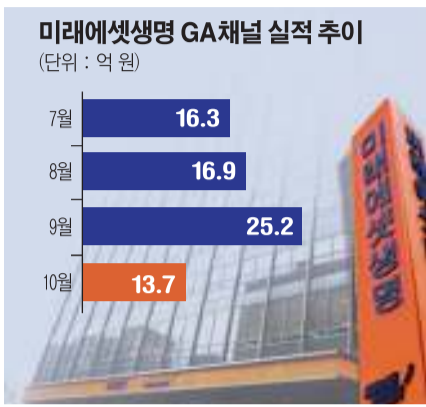
소비자 피해 우려 판매 중단 앞두고
일부 업체, 신계약 실적 1.5배 ↑

금융감독원이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을 앞두고 절판마케팅 금지를 경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판매를 1.5배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영업환경에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판마케팅 관습은 불완전판매 야기 등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하 미래에셋)은 보험대리점(GA)채널에서 지난 9월 25억 2700만 원 규모의 무해지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전년(16억9000만 원) 대비 1.5배가량 높아진 실적이다. 절판을 중단한 다음 달인 10월에는 다시 13억7000만 원으로 반토막났다. 한화생명도 9월 17억2700만 원에서 10월 15억으로 12%가량 낮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생보사는 9월 대비 10월 실적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당국의 무해지보험 개정 명령이 있었던 9월부터 판매를 중단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추세에서 이들 보험사는 절판마케팅 이슈로 막판 신계약 체결을 극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고 절판마케팅 금지를 당부한 금감원 경고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무해지 보험 상품 개정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절판마케팅 금지 공문을 보냈다. 상품 담당



부서장 회의도 열어 절판마케팅 관련 유의 사항도 통보했다.

보험사에는 주간 단위로 판매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개정을 앞두고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 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료가 20~30% 저렴하면서 기본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해 준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수백만~수천만 원을 냈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금감원이 문제삼은 건 종신보험의 해지율이 높다는 점이다. 판매과정에서 해지 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민원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현행 무해지상품 판매도 금지키로 했다.

이처럼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상품 판매

무해지보험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은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가 이 상품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를 금지시켰는데, 절판마케팅으로 인해 우려는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절판마케팅 관습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품개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국은 업포를 놓지만, 결국 절판마케팅을 원천 차단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을 이용한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친환경' 발 맞춘 우리금융 인프라 뉴딜펀드 1호 설정

업계 첫 2000억 투자 약정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사회기반시설 및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인 '우리글로벌 인프라 뉴딜펀드 1호'의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2000억 원 규모로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펀드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는 우리펀드서비스가 맡는다.

신재생에너지, 주식, 인덱스에 투자하는 기존 뉴딜펀드와 달리 이번 펀드의 투자대상은 국내 스마트 물류시설, 친환경 인프라시설, 스마트 교통시설 등이다. 엄격한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최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18일 펀드 설정을 완료했으며, 24일 첫 투자대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스마트물류센터를 선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은행이 맡고 있는 우선사업을 포함한 우량한 인프라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1호 펀드의 설정액 조기 소진 시 뉴딜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인프라 뉴딜펀드 시리즈를 지속 출시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인프라 뉴딜펀드를 설정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사업에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청소년 5명 중 1명 '카뱅 미니' 쓴다

출시 한 달 만에 50만명 가입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카카오뱅크 미니(mini)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고객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출시 54시간 만인 지난달 22일 가입 고객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한 달 만에 50만 명이 가입했다. 만 14~18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한 달간 미니 카드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편의



점으로 전체 건수의 24.8%였다.

카카오뱅크가 미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계좌개설이 필요 없는 가입절차 △신청경로나 상담의 편의성 △미니즈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등을 만족 요소로 꼽았다. 문수빈 기자 bean@

<기업 PR>

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최대 4.5만원 할인

BC카드사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 고객 대상으로 최대 4만50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말까지 비씨 신용·체크카드 로 자동납부 신규 신청하는 고객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부담금(스쿨뱅킹) 1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4만5000원 청구할인을 해준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만 신청할 경우 1만5000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모든 생활요금을 자동납부 신청 시 4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학부모



부담금은 신청 후 익월부터 3개월간 최대 5000원씩 청구 할인을 해준다.

자동납부 신청은 △BC카드 홈페이지 △페이북(앱) △고객센터(1588-4000)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해당)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전 BC카드 발급사별 할인 혜택 및 기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BC카드 홈페이지 혹은 페이북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특효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이후>

포스코 '1兆 안전투자'에도 10명 사망...“후속조치 총력”



최근 발생한 포스코 안전 사고

2019년 12월 24일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폭발사고(5명 부상)
2020년 6월 13일	포항제철소 산세공장 화재
7월 13일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 추락사고(1명 사망)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폭발(3명 사망)

화상·추락·폭발 등 사고 잇따라 최정우 회장, 안전 최우선 무색 종합대책·TF 효과 재검토 필요

포스코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잊을만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남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 배관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광양제철소 측은 당시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작업하던 중 균열로 산소가 강하게 새면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부상한 지 11개월 만에 재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포스코가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시기	대책	내용
2018년 5월	안전종합대책 발표	사고 예방에 1조1000억 원 투자
2019년 7월	안전혁신비상대책 TF 출범	노사 및 협력사가 현장 위험요소 직접 관리
2020년 7월	스마트워치 배포	위험 업무 수행 현장근무자 1200명에 배포

그동안 포스코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7월 포스코는 작업자의 신체 이상 감지 시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배포했다. 현장 근무자의 넘어짐, 심박 이상, 추락 등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배포 5일 만에 광양제철소 내 코크스공장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직원이 추락해 쓰러진 채로 발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스마트워치 착용 대상자가 아니었다.

6월에는 포항제철소의 쇳물 운반용 기차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소 내 수리 중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둔산세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진화하기도 했다.

2018년 초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나자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안전 분야에 3년간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노사 협력사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관리하는 '안전 혁신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 일어난 6차례 안전사고로 5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추락과 화상, 폭발사고 등이 일어났다. 2018년에는 질식사 사고 외에도 끼임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5명이 사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3대 중점 사항 중 첫 번째로 안전을 강조했

다. 그는 "안전의 시적인 작업표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 개소도 지속해서 발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지능형 CCTV,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확산으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연임 도전을 앞둔 최 회장도 '잊을만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사고문을 통해 "이번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현대중, 중형 LPG선 2척 계약 싱가포르 선사와 1160억 규모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싱가포르 소재 선사사와 4만 m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160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80m, 너비 28.7m, 높이 18.8m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2년 9월부터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또 동형 선박에 대한 추가 발주를 협의 중이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부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LPG선 14척 가운데 13척을 수주하게 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제주 바람으로 그린수소 만든다 두산중 풍력-수소 실증사업 협약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참여한 다. 풍력발전을 활용한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사업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두산중공업은 제주에너지공사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하에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제주도청,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참여기관은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운송,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게 된다.

실증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동북·북촌 풍력단지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 △풍력으로 생산한 3MW(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해 하루 약 600kg 수소를 만드는 수소생산 시스템 △생산한 수소를 압축·저장하는 시스템 △미활용 전력을 2MWh 용량의 배터리에 저장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두산중공업은 수소의 생산, 압축, 저장 등 수소플랜트 전체의 통합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고,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개발 등을 맡는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이주혜 기자 winjh@

청년 벤처 만난 최태원 "수직·수평적 리더십 이분법 벗어나야"

군산 소셜벤처 재방문 약속 지켜 "실패로 경험 얻어...두려워 마세요"

최태원 SK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부딪힌 청년 사업가들에게 "사업은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데,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24일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인 '로컬라이즈 타운' 등을 방문해 30여 명의 청년 창업가들과 약 2시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극복 해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하려면 창의력을 발휘해 진화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 로드맵을 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라이즈 타운은 SK E&S가 제조업 쇠락으로 위축된 군산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컬라이즈 군산(Local:Rise Gunsan)'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3층 100여 평 규모의 공간으로, 소셜벤처를 위한 업무·교육 공간 및 창업팀 육성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군산을 찾아 소셜벤처 청년 창업가들과 격의 없는 만남을 가진 뒤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올해 이 약속을 지켰다.



최태원 SK 회장이 24일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 '로컬라이즈 타운'을 방문해 군산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청년 사업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 회장에게 '리더십'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수평 또는 수직적 관계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 공감을 통해 리더십-팔로워십이 돈독해지면 구성원의 우군화가 진행돼 사업을 위한 인적 구성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청년 기업가들과의 만남에 앞서 1시간가량 영화동과 월명동 일대의 소셜벤처 사업장과 협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을 둘러봤다.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는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군산 김을 특화해 상품화한 소셜벤처를 찾아서는 지난해 결혼해 신혼여행을 떠난 대표에게 전화달리면서 축의금 봉투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 센터 유치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번 투자는 SK그룹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

의 제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잘 녹아 있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라면서 "환경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사회적 책임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 등 이미 새만금은 ESG가 녹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군산 방문에 앞서 올해 초 인수한 SK넥슬리스 전북 정읍공장을 찾아 2차전지용 동박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성과급 400만원·생산일정 연장”

기아차, 내일까지 부분파업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협의를 마쳤다. 지난 7월 본교섭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5일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내년 초까지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이 주장해온 임금 협상 주기 2년 연장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노사는 부평 2공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생산 차종의 생산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는 인천 부평 1공장 등에 내년부터 1억 9000만 달러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4개월여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생산일 기준 15일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 타결된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가 기본급 동결을 바탕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이날, 기아자동차는 끝내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기아차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경기도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막바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나섰으나 협상 약 3시간 만에 양측은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정된 파업까지 미루고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현장 조합원의 분노도 강한 상태다.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막바지 교섭까지 결렬되면서 정의대 책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생각

이 — 어 — 지 — 다

행동으로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나는 생각도, 암선 생각도

생각에서 멈춘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이라는 변화, 인택트라는 큰 변화 앞에서

고객을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했던 수많은 생각들.

지라서 곳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고객의 기쁨이 되도록.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객 가까이.

당신의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한은행**

말하시기 전에 알자
마이케어 서비스

챙겨드리자
MY 신용관리

원하실 때 만나자
디지털트 브랜치

오시지 않아도 되게하자
STAB (찾아가는 서비스)

더쉽게 해드리자
SOL 청약컨설팅

아껴드리자
월납관리 서비스

편하게 해드리자
전자문서지갑

SKT, 국내 첫 AI 반도체 출시... “글로벌 시장 공략”

SK텔레콤(SKTEL)이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출시한다. 엔비디아, 인텔 구글 등이 뛰어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SKT가 출시표를 던진 것이다.

SKT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이고 향후 AI 반도체 사업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 SKT CTO가 참석해 AI 반도체 출시를 발표하며 향후 정부,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AI 1등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KT 관계자는 “지난 3년간 AI 반도체 관련 인력을 모아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반도체는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서 SKT는 데이터센터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AI 반도체 ‘SAPEON X220’을 공개했다. AI 반도체 출시로 SKT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SAPEON X220’은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SAPEON X

데이터센터용 ‘SAPEON X220’ GPU 절반 가격, 연산속도 1.5배 내년 초부터 대규모 양산 돌입

미디어·보안 등 다양한 분야 적용 연말부터 AI 서비스 고도화 돌입

220’은 GPU 대비 칩링 연산 속도가 1.5배 빨라 데이터센터에 적용 시 데이터 처리 용량이 1.5배 증가한다. 동시에, 가격은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사용량도 80%에 불과하다.

SKT에 따르면 ‘SAPEON X220’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센터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반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SKT는 “내년 초 대규모 양산 계획이 있으며, 양산은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SKT는 이날 AI 반도체 브랜드 ‘SAPEON(사피온)’을 론칭했다. ‘SAPEON’은 인류를 뜻하는 ‘사피엔스(SAPIENS)’와 영겁의 시간을 뜻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김윤 SKT 부사장으로 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온(aEON)’의 합성어다. 인류에게 AI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다.

SKT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과기부 국책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메모리 관련 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협업한다. 반도체 디자인, 서버시스템 제작,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에이직랜드’, ‘KTNF’, ‘두다지’ 등 중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SKT는 AI 반도체 칩 기반 하드웨어부터 AI 알고리즘, API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AIaaS(AI as a Service)’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

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와 AI 기반 콘텐츠 추천,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영상 화질 개선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접목해 ‘SAPEON’을 차별화된 AI 토틸 솔루션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AI 기반 콘텐츠 추천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OTT(Over the top) 기업에 AI 반도체 기반 고성능 고효율 데이터센터부터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SKT는 올해 연말부터 미디어, 보안, 인공지능 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 ‘SAPEON X220’을 적용해 AI 서비스 고도화를 시작한다. 올해 말 ‘SAPEON X220’을 정부 뉴딜 사업인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과 ‘MEC기반 5G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SKT의 AI 서비스 ‘누구(NUGU)’, ‘슈퍼노바(Supernova)’, ‘티뷰(Tview)’, ADT캡스 등 SK ICT 패밀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반도체를 적용한다.

한편, SKT는 과기부 국책 과제로 ‘SAPEON X220’의 후속 반도체 개발도 진행 중이며, 2022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두고 금융위와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시스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적용될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 개인정보위가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여러 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했다.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위에 피해 구제 업무를 일원화해 피해 규모나 유형에 대해 원스톱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규제 샌드박스도 현행 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분야인 ‘금융’을 전적으로 소관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본인신용정보관리법(마이데이터)의 허가는 금융위가 전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업무를 맡는다”라며 “업무 통합이나 이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확

‘금융’ 개인정보는 금융위 소관 피해구제 등 놓고 혼선 빚을듯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계류 현장조사 인력 부족 문제점도

대 해석해 일반 개인정보 업무까지 포섭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금융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해 일반규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싶어도 신용법이나 관련 법률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계류에 인력 부족 문제까지 = 개인정보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수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다.

강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필요성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은 2차 개정에서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사전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박대출, 송갑석, 허은아, 김남국, 양금희, 추경호, 박재호, 윤영찬, 조명희(발의 순)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코로나19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상황에서 파기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안(양금희 의원), SNS 폐업 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한 안(허은아 의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의무를 부과한 안(김남국 의원)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안은 당장 정책 협의로 넘긴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이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된 이후 소관위 파행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법안이 상정만 됐고 공정거래 3법에 관심이 쏠려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이다. 개인정보위는 기본계획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이 부재하다.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인원은 154명에 불과하다.

박소는 기자 gogumee@



하반기 최고 기대작 ‘미르4’ 정식 출시 위메이드는 모바일 MMORPG ‘미르4’를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4대 마켓에서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르4’는 모바일과 PC 플랫폼의 크로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전투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시스템과 유기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스템 MMORPG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사진제공 위메이드

백종원도 극찬한 ‘AI 요리사의 짬뽕’

더본코리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6개 스타트업 경연

“음식 만드는 사람 관점에서 ‘짬뽕 맛을 어떻게 기계로 구현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레 희망적이다. 인공지능 이런 용어 쓰는 사람들이 음식 얘기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찡했다. 설레고 감동적인 자리였고, 굉장한 가능성을 봤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결승전에서 짬뽕 맛의 비법을 구현하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에 후한 평가를 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음식 맛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결선 결과를 향후 자사 가맹점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역량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 협력 정책이다. 1탄은 코로나 19 이후를 주제로 6개 분야별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공모전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의 품질·서비스·위생관리를 매

장방문 형태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

제시된 다양한 과제 중 가장 기술적 혁신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맹점별 맛 품질 관리’를 과제로 선택하고 가맹점별 맛의 편차가 가장 큰 음식인 짬뽕을 소재로 정했다.

더본코리아 과제에는 12개 스타트업이 도전했으며, 문제 해결 가능성 중심의 2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스타트업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들은 무선통신, 영상분석, 분광학, 열 감지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사전에 인공 홍콩방점 가맹점의 짬뽕으로 시행한 맛 편차 실험 결과를 제시하거나 현장 시연을 병행하며 기술을 설명했다.

평가에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임직원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검증, 상용화 가능성, 활용 용이성, 경제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결과는 심사단의 심층 논의와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7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 수상기업

‘생산성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생산성대회를 통해
우수한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기업들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융합과 신산업 창출로
부가가치를 높이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추진력 ‘생산성 혁신’

‘생산성 혁신’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우리 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시상제도입니다.

금탑산업훈장 DONGHEE Guide the Vehicles 동희(DONGHEE)	은탑산업훈장 삼한 C1 (주)삼한씨원	산업포장 SIPM 세일정기(주)	산업포장 KB KB 국민은행 (주)국민은행
종합대상(대통령표창) 신한카드 신한카드(주)	종합대상(대통령표창) STEMCO 스템코(주)	종합대상(대통령표창) 마더스제약 MOTHER'S PHARMACEUTICAL CO., LTD. (주)마더스제약	종합대상(대통령표창) 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래 유니콘기업(대통령표창) GITSN (주)지슨 (주)지슨	생산성향상 유공자(대통령표창) 국림피엔텍 (주) 국림피엔텍(주)	생산성 강소기업(국무총리표창) ACE ENGINEERING (주)에이스엔지니어링	종합대상(국무총리표창)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프로세스 부문대상(장관표창) 건일제약 (주) 건일제약(주)	혁신경영 부문대상(장관표창) 동방파스텍 DONGBANG PASTEC CO., LTD. (주)동방파스텍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장관표창) SENSORVIEW (주)센서뷰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장관표창) kt ds (주)케이티디에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장관표창) 영리원소프트랩 (주)영리원소프트랩	서비스 우수기업(장관표창) 부산시설공단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우수기업(장관표창) LUCIDPROMO (주)루시드프로모	생산성 강소기업(장관표창) CO-TECH (주)씨오텍
생산성 강소기업(장관표창) HILIVING (주)하이리빙	미래 유니콘기업(장관표창) IntelliVIX (주)인텔리빅스	생산성향상 유공자(장관표창) ATEXO (주)아텍스	생산성향상 우수팀(대상) LG이노텍 LG이노텍(주)

※ 본 광고는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 수상단체들이 지속적인 생산성혁신 활동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한 광고입니다.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pc 한국생산성본부

코로나 동력 삼은 '편의점 도보배달' 보폭 넓힌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요즘 퇴근길이 심심치 않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예정 요청(콜)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근 동선과 겹치는 콜을 잡으면 귀갓길에 몇 천 원을 쉽게 벌 수 있다. 그는 "배달 인력이 늘면서 콜을 잡을 때도 손이 빨라야 한다"고 말한다.

GS25 '우딜' 서비스 전국 확대 '3040 남성' 주축 직장인 부업 CU도 지난달 전문업체와 가세 구직난에 20대 배달원 늘어

3040 직장인 사이에 퇴근 후 도보 배달 부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인력 수요도 당달아 늘자 무급휴직,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동네에서 가벼운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도보 배달의 매력은 퇴근 후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수입도 제법 쏠쏠하다는 점이다.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면 1만 원(건당 3000원 기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4주 기준 평일 20일) 약 2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도보 배달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 속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전문 배달 대행업체와 손잡으면서 배달원은 일반인 도보 인력을 활용하는 등 근거리 배달 인프라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배달 시장의 성장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만큼, 특히 도보 배달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GS25	업체	CU
자체 서비스(우딜) 개발	운영 방식	전문업체와 협업
올해 8월	서비스 론칭 시기	올해 10월
건당 3000원 안팎	배달원 수수료	대외비
배달원(우친) 4만 명 돌파	배달 인프라 현황	1600개 점포
30대(36.2%)	주요 배달 연령층	20대(35.5%)

※ 출처: 각 사

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올해 8월 선제적으로 도보 배달 시장에 뛰어 들었다. GS리테일이 선보인 '우리동네 딜리버리(이하 우딜)'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우친(우리동네딜리버리친구 : 배달자)이 도보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GS리테일은 서비스 론칭 당시 서울 지역에 한정했던 서비스 범위를 8월 말 전국 점포로 확장했다.

우딜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8월 19일 서비스 정식 론칭 이후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우친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론칭 당시 GS리테일이 '연말까지 우친 1만 명'으로 잡은 목표가 무색하다.

우친의 주축은 '3040 남성'이다. 이날 GS리테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친의 남녀 구성비는 남성 70%, 여성 3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2.8% △20대 19.3% △30대 36.2% △40대 27.8% △50대 8.4% △60대 이상 5.5% 등이다. GS리테일은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상 번거로움이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 개념으로 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 라이벌 CU의 성장세도 만만찮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달 도보 배달 전문 업체 엠지플레이팅과 손잡고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엠지플레이팅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도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이끌어 온 기업으로 현재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을 대상으로 도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U 도보 배달 서비스는 요기요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도보 배달원을 우선 연결하고 5분간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륜차 배달원을 즉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 업체와 손잡은 CU는 인프라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CU는 지난달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현재 1600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셋째 주 서비스 이용 건수는 첫 주 대비 15% 늘었다.

CU의 도보 배달 서비스도 20대가 이끌고 있다. 도보 배달 서비스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35.5% △30대 25.2% △40대 24.5% △50대 11% △60대 3.3%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이 손쉬운 도보 배달에 뛰어 들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원이 늘고 있지만 배달 시장이 크는 속도는 이보다 10배 빠르다"며 "최근 배달 요금제와 복지 등이 개선되며 본격적으로 '투잡'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첫술 뜬 '건강간편식' 흥행할까

CJ제일제당 '더비비고' 론칭 기존 간편식보다 비싼 가격과 "저염식 맛없다" 선입견 과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HMR 시장도 저염·저칼로리 등 건강을 앞세운 제품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건강에 방점을 찍은 '건강HMR' 브랜드 더비비고를 론칭했다. 기존 HMR 브랜드 '비비고'의 건강식 버전으로 나트륨은 줄이고 영양 성분은 더한 점이 브랜드 콘셉트의 핵심이다. 유사식품 대비 나트륨 함량을 25% 낮추고 '고단백', '단백질 강화', '나트륨 저감' 등의 문구도 '식품 등의 법적 표시 기준'에 따라 패키지에 표기했다.

그동안 일반 HMR은 탄수화물,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짜개류 제품을 계속 이용하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면서 "뭉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높은 파, 양파 등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강을 앞세운 HMR 제품의 등장은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만 가격저항과 저염식에 대한 선입견 해소가 숙제로 꼽힌다.

우선 비싼 가격에 대한 지적이 있다. CJ제일제당의 온라인 자사몰 'CJ더마켓'에 따르면 건강HMR '더비비고'의 가격은 5000~1만 원 사이로 일반 HMR 제품과 전작 '비비고' 제품과 비교해 각각 평균 1.5배, 2배 비싸다. 특히 '더비비고'의 도가니탕(500g)은 9980원으로 전작 '비비고' 유사 제품인 '한우사골곰탕(500g)보다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더비비고는 재료의 품질과 함량, 원물 관리와 제조 공정 등 다방면에 차별화된 제품"이라면서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와

사양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듯, 같은 메뉴의 HMR이라도 재료, 품질, 함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사는 제품이 HMR인데, 나트륨을 확실히 저염간편식은 맛이 없다는 소비자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강HMR이라 할 수 있는 '헬스앤웰니스 레드밀' 시장이 10조 원 대 규모로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건강HMR이 HMR 시장 내 새로운 카테고리 자리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조림, 카레 파우치 등 레토르트 식품이 대세였던 HMR 1세대, 냉동만두, 냉동면 등 냉동식품 위주의 HMR 2세대, 냉동밥·컵밥·국·탕·짜개 등 집밥 대체 HMR 3세대를 거쳐 이제는 프리미엄 HMR이나 건강과 영양까지 고려한 단계에 이르렀단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 브랜드로 맞춤형 건강 식단을 HMR 형태로 선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고령층과 환자를 겨냥한 케어푸드 뿐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한 라이트 식단도 내세우고 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연구원은 "한국 HMR 시장은 최근 2~3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금은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 등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비자 개인 식이요법 등을 고려한 헬스&웰니스 간편식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라면서도 "최근 어린이 전용 간편식 등이 출시되는 등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단을 간편식으로 출시해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마트, 지중해 참치 할인

이마트가 최고급 참치 '지중해 참다랑어' 판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26일부터 7일간 청정해역 지중해 축양장에서 기른 '참다랑어 모듬회/뱃살/원산지:이탈리아'를 1만6900원/2만4900원(각 240g 내외)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 상품인 지중해 참다랑어는 참다랑어 중 몸집이 가장 크고 비싸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북방 참다랑어다. 수산물은 크면 클수록 비싸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북방 참다랑어는 마리당 평균 무게가 무려 200~300kg에 달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방탄소년단과 만난 칠성사이다

롯데칠성음료, 70주년 3차 굿즈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의 3차 한정판 굿즈로 방탄소년단(BTS)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칠성사이다 출시 70주년을 맞아 3월부터 칠성사이다 굿즈를 순차적으로 내놓은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모델인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칠성사이다 X BTS 미니어처 세트'를 비롯해 향수, 마그넷 오프너, 데일리 캘린더 등 다양한 제품으로 3차 굿즈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칠성사이다 X BTS 미니어처 세트는

지난 1차 굿즈 판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빈티지 미니어처 세트'에 보라색을 적용한 제품이다. 150ml 용량의 양중맛은 크기의 칠성사이다 미니병이 방탄소년단 로고가 적용된 멀티박스에 담기고, 박스 뒷면에는 방탄소년단 단체 사진이 부착됐다. 미니어처 세트는 총 3차에 걸쳐 한정 판매된다. 지난 18일에 진행된 1차 판매는 10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으며, 2차는 27일, 3차는 다음 달 3일에 판매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차 굿즈 판매에서 30시간 만에 완판 기록을 달성했던 향수 '오드 칠성(Eau De Chilsung)'의 세



로운 향인 '피치(Peach) 에디션'도 선보였다. 마그넷 오프너는 연발 감성을 살려 크리스마스 장신구와 별 패턴을 적용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추가로 발매됐다. 데일리 캘린더는 매일 한 장씩 뜯어내는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달력으로, 매달, 공휴일마다 그날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해 하루하루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CJ 오쇼핑, 전기요·가습기 등 겨울 가전 확대

최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자 본격적인 월동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 늘고 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J ENM 오쇼핑부문은 가습기·전기요 등 겨울 계절가전 상품을 확대해 고객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CJ ENM 오쇼핑부문에 따르면 추위가 갑자기 찾아온 20일부터 24일까지 TV홈쇼핑과 T커머스 생활·계절가전 상품 주문금액이 직전 5일 대비 30% 증가했다. 23일 방송한 '케어팻 가습기'는 방송시간 동안 약 2억 원에 달하는 주문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코로나19와 겨울 독감, 추위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집콕 생활을 도와줄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11월 4주차 관련 계절가전 편성을 전주보

다 2배 늘려 운영한다.

29일 오전 6시에는 '일월 전기요'를 다음달 1일 밤 9시 50분에는 월동 가전 베스트셀러 '경동 온수매트'도 만나볼 수 있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유입이 많아지면서 집안을 쾌적하게 조성해주는 가전도 인기다. 겨울철 건조해지는 실내 수분 공급을 위한 '미로 가습기'를 28일 오전 9시 20분 CJ오쇼핑 대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강주은의 굿라이프'에서 소개한다. 물 속 대장균·폐렴균 외 7대 균 99.9%를 제거하는 UV LED 살균 시스템이 들어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25분에는 공기청정기 '다이스 퓨어 쿨 크립토믹'을 방송한다. 공기청정기와 팬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기기에 내장된 LCD 화면을 통해 실내 감지된 오염물질 및 가스감지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제약바이오, 훈훈한 연말 실적...“내년엔 2조 클럽”

셀트리온·유한양행·한미약품
4분기 ‘올해 최고 매출’ 기대감
삼성바이오, 첫 1조 클럽 초읽기
녹십자 ‘트윈데믹 효과’ 흑자 전망



실적 시즌마다 새 역사를 써가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4분기에도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유한양행과 녹십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조 클럽’에 이미 안착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 7000억 원대에 그쳤던 셀트리온은 올해는 3분기 누적만으로 ‘1조 클럽’에 진입했다. 또 4분기까지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클럽’에 신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내년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1조 클럽’을 넘어 ‘2조 클럽’까지 진입하는 업체가 등장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제약·바이오업계 매출 1위에 오른 셀트리온은 4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지난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셀트리온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1조3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1%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받아들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미국 자회사

인 셀트리온USA는 이달 21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 ‘샘핀뉴트(Sampinute)’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6월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자산을 인수했는데 관련 매출이 4분기에 인식되면서 3분기보다 성장한 실적을 받아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또 셀트리온은 25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 2상에서 환자 투약을 마쳤고, 임상 2상 중간 결과 확인 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만큼 올해 이에 대한 매출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서정진 회장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월 말~1월 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2월부터 다케다 제약 아시아태평양 사업부문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매출 인식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성공 시 국내외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4분기 매출은 5963억 원, 영업이익은 2605억 원으로 전망한다”라고 내다봤다.

기존 제약 업계 1위인 유한양행은 4분기 라이선스 수익 반영으로 실적 전망이 밝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유한양행은 4분기에도 라이선스 수익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4월 안센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이 이달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726억 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했다. 이해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레이저티닙 2차 개발 마일스톤을 수령 금액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4분기 매출은

4785억 원, 영업이익은 870억 원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9년 만에 연 매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5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789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4분기에는 상·하반기 급증한 CMO 수주 계약에 따라 3공장 가동률 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4월 미국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사 이무노메디스 수주 확대를 시작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스위스 소재 제약사 2곳에서 수주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실락 GmbH, 룬드벡, 사이토다인, 미국 소재 제약사 2곳, GSK, 아스트라제네카, 체코포인트 테라퓨틱스에서 추가 수주를 따냈다.

김지하 애널리스트는 “4분기부터 3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라 실적 상승 구간에 진입하면서 4분기 매출은 2949억 원, 영업이익은 690억 원으로 전망한다”라고 내다봤다. 전망치를 반영할 경우 연말까지 삼성바이오의 매출은 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독감백신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녹십자도 올해 4분기에는 달라진 실적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트윈데믹’ 우려로 독감백신 수요가 급증해 폐기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는 북반구 지역 수요 증가로 멕시코의 독감백신 수출이 약 300억 원 발생하고, 수출부문 백신제제는 전년 대비 74.3% 증가한 17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4분기 매출은 10.7% 증가한 393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도 적자에서 30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3분기 적자 전환했던 한미약품은 4분기 실적 정상화가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당뇨병 치료제의 개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의 영향으로 3분기 적자 전환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적자인 만큼 4분기 다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 전망이 크다. 서미화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매출은 4.9% 증가한 3177억 원, 영업이익은 36.2% 감소한 191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선 기자 only@

모더나·화이자로 뜬 ‘RNA’ 백신·치료제, 국내도 나선다

질병 근본 치료 가능한 신기술
진원생명·올릭스·에스티팜 등
연구개발·위탁생산 진출 잇따라



화이자의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을 잇달아 전하자 이들의 백신 개발 기술인 ‘RNA(리보핵산)’에 관심이 쏠린다.

RNA는 DNA가 지닌 정보를 복사해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핵산이다. RNA 기반 치료제와 백신은 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RNA 백신의 경우 국내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상품화한 적이 없고, RNA 치료제는 2016년 아이오니스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으며

로써 최초의 RNA 치료제 시장을 열었다.

미국의 경제 종합 미디어인마켓워치에 따르면 RNA 치료제 및 백신의 시장규모는 올해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3300억 원)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8.7% 이상 성장해 21억 2000만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RNA 기반 백신이 상용화하면 시장규모는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에서도 RNA 백신과 치료제 생산에 뛰어드는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 VGXI를 통해

2018년 미국 휴스턴 매소디스트 병원 연구소에서 mRNA 백신 및 RNA 치료제 생산의 핵심기술과 mRNA 백신 설계 및 연구기술을 이전 받았다. 진원생명과학은 위탁생산 시설인 VGXI를 통해 RNA 치료제와 백신 CM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진원생명과학 측 관계자는 “RNA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대규모 위탁 생산을 위해 공정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DNA 백신에 대한 IND(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은 이와 별개로 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매소디스트 병원 연구소와 손잡고 코로나19 RNA 백신을 연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은 아니지만, RNA를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도 있다. 올릭스는 RNA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흉터의 생성 기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흉터 생성을 억제하는 신약 OLX101A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FDA에서 OLX101A에 대한 임상 2상 IND 승인을 받았다. 올릭스 역시 독자적 RNA 치료제

개발 플랫폼 ‘OPNA(올리페스 PNA)’를 활용한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시험을 영국과 호주에서 진행 중이다.

에스티팜은 RNA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우선 진출한 뒤 추후 RNA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스티팜은 이달 mRNA 사업개발실을 신설하고, mRNA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와 백신 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사업 진출은 급성장하는 mRNA 치료제 및 백신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에스티팜은 지난 10월 mRNA를 합성할 때 필요한 분자의 안정화 핵심기술인 5'-캡핑(Five Prime Capping) RNA 합성법의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국제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mRNA 기반 기술의 연구와 생산을 위해 반월공장에 신규 장비와 설비 구축을 마친 뒤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체 효소의 생산 기술도 확보했다. 현재 에스티팜은 임상용 원료만 공급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동아제약 멀티비타민 ‘셀파렉스 에센셜’ 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현대인들은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피로 예방, 면역 증진,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까지 첨가한 멀티비타민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동아제약은 멀티비타민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셀파렉스(SelfRX)’ 에센셜 라인 4종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에센셜 라인 4종은 남성을 위한 에센셜포맨, 에센셜포맨50+, 여성을 위한 에센셜포우먼, 에센셜포우먼50+으로 구성됐다.

셀파렉스의 에센셜 라인 4종은 2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원화에 도움이 되는 L-테아닌, 여기에 부원료로 아미노산까지 더해 기능성을 강화했다. 아미노산은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단백질 부족 시 집중력 및 면역력 저하, 근육 상실 및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20여종의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 ‘이소류신’과 ‘발린’은 근육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성분들은 근육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의 발생을 억제해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셀파렉스 에센셜 라인 4종에 함유된 테아닌은 녹차와 홍차 등 차잎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강감 완화 및 스트레스 감소 효과로 기능성을 인정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2상 투약 완료

치료 목적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
10개국 글로벌 임상 3상도 준비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25일 오전 4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맵·Regdanvimab)’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327명을 모집해 투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임상 2상 중간 결과 확인 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CT-P59의 임상 2·3상 시험을

승인받고,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해왔다.

임상 2상에서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증증 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셀트리온은 당초 계획했던 임상 2상 환자 수 300명보다 많은 327명의 피험자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통상 임상 환자의 경우 모집인원의 10%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셀트리온 역시 안정적인 임상을 위해 환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대상 피험자군을 위약 투여군, 저농도 투여군, 고농도 투여

군으로 분류해 투약을 진행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CT-P59의 효과와 안전성, 적정 투약 용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조속히 도출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승인될 경우 즉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송도 생산시설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만 명가량이 치료받을 수 있는 CT-P59 생산에 돌입해 초기 물량 생산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조만간 글로벌 3상 임상도

개시한다. 3상 임상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상에서 확인된 CT-P59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를 통해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신약 허가 규정에 맞는 임상 프로세스를 거쳐 CT-P59 최종 제품 승인 절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향후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 연간 최대 150만~200만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존 제품의 재고 상황 및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연간 생산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라임·옵티머스 후폭풍... 증권가 CEO 연임 '빨간불'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사상 최고지' 실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이슈로 내부통제관리 능력엔 의문부호가 붙었다. 실적을 보면 연임이 당연해지는 분위기지만 사모펀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을 맡으면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KB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거뒀다. 채권에 특화된 IB 부문을 김성현 대표가 잘 이끌었고, 견조한 WM 기반을 만들어낸 박정림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가 시장에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2.7% 증가한 3452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으로는 두 대표의 성과를 인정하지

김성현·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관련 금감원 징계 '발목'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 등
호실적에도 연임 여부 '불투명'
사모펀드 사고 없었던 미래에셋
최현만·조웅기 대표는 연임 무게

않을 수 없다. 문제는 1조6000억 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박정림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냈고, 김성현 대표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특히 박 대표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두 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김 대표만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대표의 경우 KB금융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

연임을 결정하기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 역시 연말 연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한 859억 원을 기록, DGB금융지주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비은행 부문 순이익 기여도는 지난해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25%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연임에 발목을 잡는 것 역시 사모펀드 이슈다. 지난 7월 금감

원 발표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설정원본 5151억 원 가운데 325억 원을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

사 모두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사태 등 다양한 사모펀드 이슈에 연여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의 '고의적 과실'이 없었던 만큼 정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내년 3월까지 사모펀드 이슈를 어떻게 마무리짓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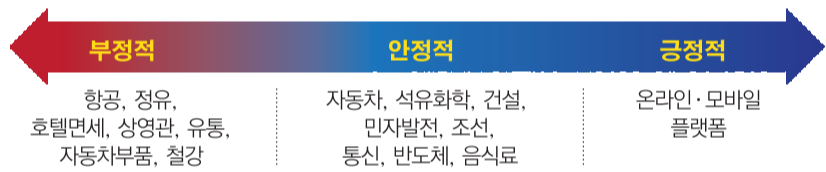
반면 미래에셋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만큼 또 다시 두 대표가 연임할 것이라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수장을 빠르게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3분기 누적 세전 순이익 8723억 원을 기록, 업계 최초로 세전 기준 순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는 아직도 코로나19 불확실성 속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을 교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모펀드 이슈를 어떻게 잘 마무리짓는가가 CEO 연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eoml@

무디스·한신평 "기업 신용등급 하향기조 지속"

코로나 재확산, 최대 불안요인
항공·상영관 등 부정적 업종
인터넷 플랫폼은 경쟁력 강화
자동차 업종 회복세 가장 뚜렷

주요 산업별 신용도 전망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국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내년에도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됐던 산업군 중 자동차 업종의 회복세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했다.

25일 무디스와 한신평은 공동주체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별 신용도 전망을 제시했다. 유원희 무디스 연구원은 "한국은 수출이 커 글로벌 경기의 회복도 중요한데 2021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GDP 규모는 2019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2019년 대비 못미치고 하방리스크가 커 2021년 회복의 증가폭이 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가 평가한 국내 민간기업 22개

중 12개 기업은 부정적 전망이 부여됐다. 이중 현대차그룹(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5개사와 SK그룹(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하이닉스, SK E&S) 5개사가 속해있다.

유 연구원은 "LG화학의 등급이 최근 바뀜에 따라 부정적 기업은 12개가 됐다"며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내년에도 하방리스크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신평 역시 등급 하향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부정적 및 하향경도 기업의 수는 48개로 최근 10년 기준 최고수치다.

권기혁 한신평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3분기 경기 성장률 개선이 무색하게 4분기는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권 연

구원은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22~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을 기반한 국내기업들은 수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연구원은 "한신평은 내년도 아웃룩에서 코로나19 영향과 업무적·재무적 대응능력,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신평은 이 같은 요건의 부정적 업종으로 항공, 상영관, 호텔, 면세, 정유를 꼽았다. 반면 인터넷 플랫폼 업종은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연구원은 "항공은 대한항공 인수가 변수지만 여전히 편더멘탈은 부정적"이라며 "자동차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 및 기술 경쟁이 존재하나 재무적 버퍼가 두꺼워 신용도는 안정적인 것이고 음식료, 반도체, 통신 역시 코로나19 대응능력이 우월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자산운용 '온라인채널 팬' 30만 돌파

알투 등 비대면 온라인 채널 펀드 가입액 170억

삼성자산운용은 25일 온라인 채널 팔로워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투자플랫폼 삼성펀드솔루션이 14만 명, 페이스북 12만 명, 이메일 뉴스레터 5만 명 등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접 펀드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알투(R2)와 펀드솔루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협업해 펀드를 런칭하는 등 비대면 채널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직판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출시된 모든 펀드를 검색하고, 투자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투자플랫폼 '삼성 펀드솔루션'이다. 가입자는 14만 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펀드솔루션 앱을 통해 업계 전체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추천 포트폴리오 등 투자에 필요한 종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펀드 직판 브랜드 R2(알투)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EMP, 공모주가연계펀드(ELF)



등 저위험, 저비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수탁고는 약 35억 원에 이른다.

지난 2월 카카오페이증권과 협업해 출시한 '삼성 믿음직한사계절EMP 펀드'는 판매 개시 9개월 만에 수탁고 135억 원을 돌파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자 교육 콘텐츠와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작해 온라인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이기는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eoml@

자본론 "코스피 내년에도 상승세... 2700~2900선 전망"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코스피가 2900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2021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유지돼 코스피가 내년 말 2700~2900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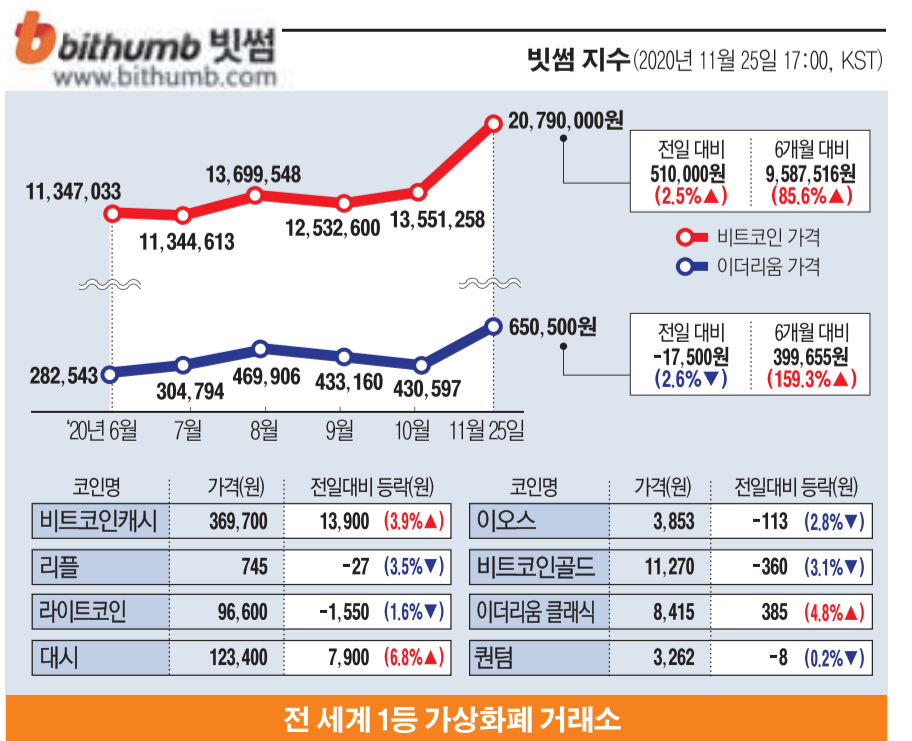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제회

동 재개와 경기 회복 기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시기의 조정폭을 만회했으며 2021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활동의 정상화로 기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미국의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는 지수의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선반영된 영향으로 내년 지수의 추가 상승 폭은 경제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현주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는 소비 및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외에 선진국의 서비스 중심 회복 가능성은 한국 경제 회복세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단은 1050원, 상단은 1130원으로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호성그룹 회장〉

“배임 무죄” 조현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 “아트펀드 손해 입증 못 해” 측근들 허위급여 지급만 유죄로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미술품의 시가를 책정할 자료가 없어아트펀드가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사진) 호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호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랜드

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뜻밖인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GE로부터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상감자당시 GE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회사의 재산 보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79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호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檢, 옵티머스 브로커 ‘사기·횡령’ 구속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팀(주민철 부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등과 함께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받고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 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며 김 대표에게 3회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6억5000만 원을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10억 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5월에는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고 김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 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

박기영 기자 pgy@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해경 2심도 실형

법원 가압류 전 빼들려

‘동양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달리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2013년 국정감

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하고 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들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들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받아 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회장이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늘도 무사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A고등학교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 25일 방역요원이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다. 뉴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알쏭달쏭 환경용어키워드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오답노트 제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김사미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일면 경제가 보인다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기기가 도술선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만년이나 펜션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화양산토담펜션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기어오르던 펜션을 짓겠다고 기세를 문우연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실의와 불안에서 서포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웬일! 펜션 사업이 썩 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심심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땀 지푸라기 천도 종종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비즈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버려진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땀 커뮤니티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화 명작 돌아보기 얼얼 없는 거리의 화가, 땀크서 "15억 원짜리 그림이 잘려나간 사연"

Eco-Friendly Feel환경 시대 친환경 생활

신라비가 만난 사랑

다섯달 뉴질랜드 청춘로 마저 영친구를 꿈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친구성장 체험

세계 7억 인구 중 절반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뭐지? 최정호 이사장의 프라임타임

나조차도 감동 못할 거사, 그 누가 감동해주리?

이건우 작사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기적'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리의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젓하다는 자부심으로 매일 집 앞 화단을 단장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가림막 낙서·신분확인때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

수능 D-7 수험생 주의사항
자가격리자 별도장소 이탈 땐 고발
여분 마스크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배정받은 곳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갈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수능 하루 전까지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보건소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시험장을 배정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진·격리자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에는 보건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수능 당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를 가야 한다. 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 관리 주체인 관

2021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 1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수령·시험장 확인
- 2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3 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4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5 시험장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확인. 4교시 응시방법 숙지
- 6 시험 전날·당일·시험 후 방역수칙 준수 철저히

할 교육청은 시험장을 이탈한 자가격리 수험생을 고발조치 하게 된다.

◇망사·벨브형 마스크 NO=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이뤄진다.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분실이나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며 망사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지정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시 환기 대비 외투 챙겨야= 수능 1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험생들은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 서로 모여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둔 24일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週1회 등교라니”... 맞벌이, 돌봄공백에 발동동

교육질 저하·과제부담 등 '한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수업이 축소되자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이 부각되면서 등교수업이 확대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학교들은 24일부터 '교내 밀집도 3분의 1'을 지키면서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를 중단하고 등교 일수를 주 1~2회로 전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30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중학교의 전 학년 원격 수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이

영애(45·가명) 씨는 “막내가 온라인 개학으로 친구들과 'EBS'를 더 먼저 만나고, 5월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 뒤에도 '답답하다'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지난달부터 학교가 재밌다고 했는데 또다시 일주일에 한번만 등교하니 중요한 첫 학년이 이대로 끝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만 하다가 올해가 끝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초등 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최이현(44·가명) 씨는 “수시로 일정이 바뀌니 어디까지 적응을 해야 할지 이제는 (학부모로서) 대비해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면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좋아했는데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니 안스럽다”고 밝혔다.

김미현(42·가명) 씨도 “올해 1년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서 “아이들의 정서, 지식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환경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당장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최 씨는 “올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버텨왔는데, 원격 수업을 하면 조부모들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곧 있으면 방학이라 그 전에 긴급돌봄이라도 신청하려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할까 봐 이마저도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등교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당장 맞벌이 학부모들은 휴가를 무한정 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돌봄교실에 보내거나 조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이 부모에게는 과중한 과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swanicoco
NATURAL COSMETIC

식약처 인증 100% 천연화장품

더 자연 블랙보리

진정(鎮靜)에
진정(眞情)을
더하다.

치솟는 집값에 전세난...이참에 분양 아파트 잡아볼까

주택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장기화된 전세난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 매력은 더 커졌다.

지난 주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조사에선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최악의 지표가 나왔다. 지난 주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감정원이 201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매매가격 지수 역시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0.25%)을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이 동시에 악화하는 건 전세난이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물건 품귀 현상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세 난민' 일부는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

길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전세난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점이다. 정부가 지난 주 전세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공급 물량이 대부분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이 후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전세를 얻은 돈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수익 원대 분양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건 덤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60대 1을 넘어서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예사기 됐다. 경기 과천시나 하남시 등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만 명이 몰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도 재건축 부진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은 한동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대도시에선 올해와 비슷한 경쟁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열풍 속에서도 비 인기 단지는 청약이 미달하는 등 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및 분양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청약에 나서게 좋다"고 조언했다.



녹지 품은 대단지...교통·생활편의까지

대림산업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대림산업이 이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다. 총 505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7~84㎡ 28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은 부평구 전체가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돼 44곳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부평에서도 청천동·산곡동 일대는 개통 예정인 산곡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시 인근에 약 1만50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다.

군부대 부지 이전사업도 예정돼 있다. 제1113공병단과 부영공원 미군부대, 제3보급단이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이전한다. 군부대 재배치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여의도 면적 절반 규모다. 청천동에 있던 공병대대는 이미 이전을 마쳤다. 남은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경찰서, 공공청사,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 중 한 곳이다. 이 사업에는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 구간 신규 개선이 포함돼 있다. 연장선이 개통하면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해 가산 등 서울 서북생활권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공항철도 연장사업도 예정돼 있다.

단지 주변에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피골놀이공원 등이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CGV, 아이즈빌 아울렛, 모다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주택전시관은 인천 부평구 평천로에 마련된다.

4베이에 알파룸 설치...1순위 경쟁률 25대 1

포스코건설 대구 더샵 프리미엄

포스코건설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분양하는 '더샵 프리미엄' 아파트 1순위 청약이 24일 평균 경쟁률 25대 1로 마감됐다. 189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4728명이 청약에 뛰어들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더샵 프리미엄은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과 아파트 300가구로 구성된다. 최고 48층 높이로 3개 동(棟)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0㎡ A형 85가구 △70㎡ B형 85가구 △84㎡ A형 87가구 △84㎡ B형 43가구가 공급된다. 오피스텔 호실당 전용면적은 84㎡다. 입주는 2024년 9월 시작할 예정이다.

화했다. 수납 공간 확보를 위해 드레스룸과 팬트리도 설치된다. 실내 공간에는 음성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조명과 난방, 환기 시스템을 제어하고 주차·택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아이큐택'이 설치된다.

더샵 프리미엄은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구의 동맥으로 불리는 신천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구 곳곳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도 차로 10분 거리(약 3km)에 있다. 단지 주변 교육시설로는 칠성초와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물놀이 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스마트워크룸,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포스코건설은 단지를 남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모든 가구를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

오피스텔 역시 쾌적한 주거를 위해 4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북도 팬트리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인덕션 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등이 기본 제공된다.

더샵 프리미엄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마련됐다.

친환경 설계...무주골 근린공원 희소성도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한화건설은 내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서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아파트를 분양한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총 76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84㎡형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인천시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돼 8만5000㎡ 규모의 무주골 근린공원과 함께 조성된다. 무주골 공원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나들림터, 단풍나무뜰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학산도 인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도보권에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인천시청역)과 수인분당선(원인재역)을 지하철 3정거장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경원대로를 이용하면 인천 전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2022년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원 특례사업으로 희소 가치가 큰 데다 포레나 브랜드만의 친환경 설계가 적용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뉴코아아울렛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구월스타필드(예정)와 가천대길병원 등이 있다. 인천문학경기장·CGV 등도 가깝다. 선학초·선학중·인천여고·선학별빛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있다.

홍보관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마련된다. 내달 인근에서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대전 최고 주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516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도안 2차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도안 2차는 지하 4층~지상 14층짜리 8개 동에 총 516실(전용면적 84㎡)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이 아니어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미뉴 도안 2차' (총면적 약 1만7160㎡, 총 166개 점포)도 함께 조성된다. 올해 상반기에 평균 223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된 '힐스테이트 도안'과 함께 약 100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교육 환경도 좋다. 흥도초·복용초(예정)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남4중(예정)·도안고·대전체중·대전체고 등도 반경 1km 이내에 있다. 원신흥도서관과 대전시립박물관 등도 가깝다.

힐스테이트 도안 2차는 대전 최고 주거지로 떠오른 도안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예정)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대전 전 지역으로 통하는 동서대로와 도안대로가 연결해 있고, 인근에는 도시철도 1호선 유성역,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있다. 단지 주변에는 유성북항터미널과 도안 IC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도안 2차는 중소형 아파트 구조의 평면 설계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다락공간·드레스룸·팬트리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주거상품인 '넥스트 스마트 솔루션'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넥스트 스마트 솔루션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마트, 안티바이러스 컨셉의 주거상품이다.

초기 임대료 시세 95%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봉담

현대건설은 다음 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의 입차인 모집에 나선다.

경기 화성 봉담2지구 B-3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봉담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100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2㎡ 80가구 △72㎡A 88가구 △72㎡B 222가구 △84㎡ 614가구 등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유무, 소득 수준(일반공급 기준), 거주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 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도 이용하기 쉽다. 도보 통학거리에 유치원(예정)과 수현초, 수현중(예정)이 있다. 커피복합문화시설(작은도서관)과 화성시립 봉담도서관도 가깝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100%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판상형(전용 72㎡B 제외) 설계가 적용됐다. 4베이(전용 62㎡ 제외) 설계와 드레스룸·펜트리(전용 72㎡A·B 적용), 빌트인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넓은 중앙광장과 녹지·수경시설, 어린이집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서비스 위탁관리 전문업체 우리레오프MC와 함께 수준 높은 주거 특화서비스 '힐스테이트 플러스'도 제공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봉담은 주거 환경이 좋은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며 "큰 자금 부담 걱정없이 살 수 있고,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와 상품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반포3차 등 재건축...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삼성물산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에 자사의 최신기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아파트와 신반포23차, 강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다. 기존 2433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2990가구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한다.

단지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올림픽대로와 반포대로가 인접했다. 인근에는 계성초와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우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성모병원도 가깝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해외설계사(SMDP)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사우나와 함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이프와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 직시서비스 공간



도 설치할 계획이다.

각 가구에는 래미안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적용한다.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휴큐브와 얼굴인식, 지문인식, 자동환기 시스템을 제공한다. 단위세대 천장고는 일반아파트(2.3m)보다 20cm 높은 2.5m로 설계해 공간감을 확대한다. 또 외부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아파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리조트 레인보우' 콘셉트의 조경이 적용된다. 7가지 콘셉트에 맞춰 구역별 특화 조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18개동 2339가구...단지 내 실내수영장도

롯데건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대에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를 분양한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8개 동 전용면적 65~173㎡ 23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5㎡ 445가구 △74㎡ 217가구 △84㎡ 1515가구 △93㎡ 67가구 △108㎡ 76가구 △127㎡ 15가구 △169㎡ 1가구 △151㎡P 2가구 △173㎡P 1가구로 이뤄졌다.

단지 반경 2.5km 내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환승센터가 있다.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오산IC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 원동대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약 5분이면 동탄신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원당초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성호중·운암중·운천고·성호고·운암고 등도 인근에 있다. 롯데마트·CGV·오산한국병원·오산종합운동장·오산시청·경찰서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가깝다.

단지 동쪽에는 마등산이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수변공원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



(1만1000㎡)의 특화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산에선 처음으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들어서고, 실내골프클럽·피트니스·게스트하우스·키즈카페·키즈점·어린이도서관·멀티코트·다목적홀 등도 조성된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에서 반경 1.5km 내에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상업·첨단산업시설이 융·복합된 계획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오산시에서도 개발 호재 중심지인 원동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롯데캐슬 브랜드"라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오산시 원동 일원에 마련된다.

축구장 3배 규모 조정 '고품격 단지'로 조성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쌍용건설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들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41㎡ 16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59㎡ 548가구, 74㎡ 709가구, 84㎡ 429가구, 129㎡-PENT 2가구, 141㎡-PENT 8가구 등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쌍용건설의 건설 역량을 모두 담은 고품격 단지로 지어진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조정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름에는 워터파크, 봄·가을에는 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파크와 펫팜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펫가든이 설치된다.

이 외에도 단지를 순환하는 약 1.5km 트랙과 미스트 분수, 루프탑 가든, 카페테리아, 클럽핑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설치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로 배치된 아파트는 소형 주택형인 전용 59·74㎡(일부 타입 제외) 포함 모든 주택형이 4베이



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기능을 극대화했다. 전용 84㎡형은 3면 개방형 발코니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안성 공도읍 일대는 안성과 평택을 아우르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안성IC와 공도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쾌적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최근 문을 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점이 단지와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어 차로 5분이면 닿을 수 있다.

평택 고덕삼성반도체공장과 쌍용자동차공장 등이 가까워 배후 수요도 갖췄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공도초와 반경 1km 안에 중·고등학교까지 있다.

건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07-9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계약금 2회 분납·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금호산업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금호산업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높이로 5개 동(棟)이 들어선다. 626가구가 입주하며 가구당 전용면적은 59㎡다. 입주는 2023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38만 원, 가구당 약 2억~2억5000만 원에 책정됐다. 계약금은 2회 분납이 가능하고 중도금 60%도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정당계약 1년 후부터 전매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엔 2023년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대경로와 대학로, 4번 국도 등을 통해 대구 시내나 주변 도시를 오가기도 편하다.

교육 환경도 좋다.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맞은편엔 고등학교가, 단지 내엔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하주초와 무학중·고, 하양여중·고 등도 아파트 인근에 있다. 하양택지구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도 좋다.



금호산업은 대부분 가구를 4베이 구조로 설계해 통풍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금호산업은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에서도 '분양 완판'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금호산업은 올 상반기 분양한 단지 네 곳에서 미분양 없이 모두 입주 계약을 마치는 데 성공했다.

금호산업 측은 "규제를 피한 전매 1년 수혜 단지로 분양가도 저렴해 젊은 20~30대 신혼부부 및 실수요자들에게서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광양 신흥주거타운 '10년 만의 빅 브랜드'

한라 가야산 한라비발디 프리미어

한라는 다음달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가야산 한라비발디 프리미어'를 분양한다.

가야산 한라비발디 프리미어는 광양 내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영동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총 3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형으로 이뤄졌다.

단지가 위치한 광영동은 광양시 중심지인 시청권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광양 핵심 산업지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가까이 있어 직주근접 입지를 자랑한다. 광양시청,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중마동 생활권도 가깝다. 반경 3km 이내에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광양초·중·고 및 가야초가 걸어서 7분 남짓으로 교육 여건도 좋다. 전남평생교육원과 광영근린공원, 의암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에서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 옥곡나들목까지 차로 5분 거리다. 단지 바로 앞 강변로를 이용하면 인근 산업단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시인 순천, 장흥, 여수, 남



해, 거제, 통영 등으로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인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양은 비규제지역으로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 5월 분양한 '광양 센트럴자이'는 평균 46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라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광양제철소가 있어 배후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모든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형으로 이뤄져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지 20% 공원·녹지 조성... 교통환경 우수

GS건설 경북 경산 중산자이

GS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지구에서 '중산자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중산자이는 총 11개동 1453가구로 1단지는 8개동 1144가구, 2단지는 3개동 309가구 규모다. 주택 크기는 1단지는 74㎡, 84㎡, 117㎡로 구성됐고, 2단지는 96㎡, 117㎡로 이뤄졌다.

중산자이가 들어서는 중산지구는 경산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신도시다. 부지 중 19.8%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과 녹지, 광장으로 조성 중이다.

중산자이는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를 나누는 경계에 위치해 있어 수성과 경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반경 1km 이내에 사월역·옥수천·신매공원의 수성라이프와 중산호수공원·이마트·성암산의 중산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을 갖췄다.

교통 여건도 좋다. 대구지하철 2호선 사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빠르게 대구 도심 진입도 가능하다. 수성IC, 동대구IC, 경산IC, KTX 경산역 등도 가깝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 경산점이 있다. 달구벌대로를 따라 수



성구 학원가와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등도 있다.

타워형 설계없이 전세대 4베이 혹은 5베이 판상형 설계로 쾌적함을 더했다. 드레스 룸과 팬트리도 전세대에 제공할 계획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올해 대구에서 공급한 자이 아파트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 아파트인 만큼 중산자이 또한 중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대구 수성구 고산역 인근과 대구 스타디움 쇼핑몰에서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마련된다.

민간임대 8년간 거주 가능... 중소형 구성

대우건설 인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대우건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를 이달 분양한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지하2층~지상 25층짜리 17개동에 14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영종지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한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3년에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완전 개통하는 데 이어 제3연륙교(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영종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고, 하늘고·인천과학고·인천국제고 등도 가깝다. 롯데마트와 CGV 등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청사, 보건소, 등기소 등이 들어서는 공공청사가 2025년 입주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운산, 근린공원, 씨사이드파크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로 책정된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데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가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청소·살균·가전렌탈 등 특화서비스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고척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로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 동의 주상복합단지과 지상 최고 35층, 5개 동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4~79㎡형 220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앞으로 뻗어있는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고척 아이파크는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임대가 보장된다. 입주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청약은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청약(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85% 이하의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최대 750만 원)가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재당첨 제한 및 청약



통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 규모다.

고척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만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민은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와 매트리스 살균, 가전·정수기 렌탈, 세탁·이사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 내 입주자 GX프로그램과 개인 PT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자를 위한 자전거와 차량용 전동공구 등의 웨어링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고척 아이파크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양평 첫 역세권 아파트... 최첨단 IoT 눈길

반도건설 양평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반도건설이 다음달 경기 양평군 다문지구에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양평 첫 역세권 청정계획도시인 다문지구에 들어서는 유일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짜리 9개동에 총 740가구(전용면적 59~84㎡)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96가구 △59㎡B 200가구 △84㎡ 344가구 등이다.

단지 내에는 양평군 최초로 별동 건물인 U-라이프 센터가 들어선다. U-라이프센터에는 입주민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인 헬스케어서비스와 문화강좌,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반도 유보라'의 특화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첨단 인공지능 IoT서비스'를 적용해 세대내 가전과 조명,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입구와 세대내 출입구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설치해 미세먼지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넉넉한 공간 거리를 확보해 각 가구 조망과 일조권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광풍거실,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수납공간 등 유보라만의 고객 맞춤형 평면설계가 적용되며, 4베이 위주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는 친환경 단지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수공간을 갖춘 중앙광장이 조성되고,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어린이놀이터도 마련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입주민들의 취미와 건강을 고려한 휘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고교도 도보 10분대

호반건설 아산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다음 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분양에 나선다.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엔 지하 2층~지상 28층 높이로 32개 동(棟)이 들어선다. 총 3027가구 규모 대단지로 가구당 전용면적 59㎡형과 74㎡형, 84㎡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3년 7월 시작할 예정이다.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탕정미래초와 맞붙어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단지 남측으로 학교 용지가 추가로 마련된 데다 충남고교와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삼성고도 걸어서 10분대(1km) 거리에 있다.

생활 여건도 편리하다. 단지에서 3km가량 떨어진 탕정면 매곡리에 내년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이 개통한다. 이순신대로나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티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나 천안시, 수도권을 오가기도 좋다. 차로 10분 거리(약 6km)에 있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엔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변 녹지 공간은 곡교천과 곡교천, GWP파



크,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호반건설 등은 단지를 남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대부분 가구를 4베이 구조로 설계했다.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지상 공간은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시에선 주택 유무나 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반건설 측은 "우수한 교육 환경, 삼성디스플레이 시티권 개발 등이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관심과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견본주택은 다음 달 매곡리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교통망 탄탄...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한양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한양이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 고산지구 3개 단지(C1-C3-C4블록)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총 2407가구로 69㎡, 79㎡, 84㎡, 101㎡, 125㎡로 이뤄졌다. 중소형은 물론 택지지구 내 희소성이 높은 대형 타입까지 갖췄다.

빠어난 입지도 돋보인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주요 업무지구를 잇는 교통망도 탄탄하다. 고산지구에서는 동의정부IC 또는 민락IC를 통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접근이 쉽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양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한양의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인 '수자인스마트홈 1.0'을 본격 도입한다. 수자인스마트홈의 'Six Zone 수자인 클린케어&엔택트 솔루션'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 입구부터 지상 공간, 지하 주차장, 각 동 출입구, 승강기 및 집안까지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6곳으로 구분해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수자인 만의 미세먼



지 저감 및 차단 시스템이다.

단지 입구는 차량 번호 자동인식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지상 공간에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고, 단지 내에 미스트 조형물(인공 안개 고압분사)을 설치해 쾌적함을 높인다.

지하 주차장에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가동된다. 외부에서 흡착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동 출입구 에어샤워, 승강기 내부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도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인데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은 암수술... 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제32회 아산상 시상식 '우간다 27년 봉사' 여혜화 수녀 대상

'도산 전문' 임종엽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

회계사로 일하며 사시 도전...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활동 중 유동성 위기 초기 회생신청, 정상적 시장복귀 보며 보람 느껴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법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879건으로 전년 769건에서 100건 넘게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47·사진)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 적시에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계사 출신 도산 전문 변호사다. 1998년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PwC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약 100건 이상의 법인파산 사건의 관제 업무를 맡는 등 현재까지 약 25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한다.

임 변호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회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도산 업무를 전문 분야로 다뤘다. 2008년 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의 사건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국내 파산, 회생 건수가 급증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회계, 조세, 기업가치평가 등 업무가 몸에 익었던 그는 도산 업무에 집중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약 100건 이상의 법인파산 사건의 관제 업무를 맡는 등 현재까지 약 25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한다.

그는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를 누구보다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건 결정문마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같은 문장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회생 사건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산 절차는 크게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로 나뉜다. 파산 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의 목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효율적으로 재가하는 데 있다. 즉, 장래의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갚게 하는 것이다. 회생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이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 가치)이 회생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을 암 수술에 비유했다. 암 말기 환자보다 초기 환자가 수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기업 회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그는 "기업이 회생 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

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기업 회생 신청 시 전문성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을 대리인이 회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면 기업이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회생이 암 수술이라면 법률대리인은 외과 의사인데 의사의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면 성공적인 수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다. 기업 파산도 마찬가지다. 부인권(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권리)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10년 넘게 도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뿌듯한 순간도 많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마자 회생신청을 해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대표적이다. 그는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회생 절차를 언급하며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신용등급이 정상기업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했다. 이어 "회생 업무를 맡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연이와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받을 때도 있다"며 "그렇지만 회생 회사의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왼쪽부터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대상 수상자인 여혜화 베네딕도 수녀의 대리수상자인 문현숙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 원장수녀, 민형래 원장,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 대표 박지숙 수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홀에서 제32회 아산상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수상자와 동반인 1명만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여혜화(72) 베네딕도 수녀는 필리핀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3년 수녀회에서 최초로 우간다 파견을 자원해 27년간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여혜화 수녀는 현지 병원과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아산상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대리 수상했다. 아산상 대상 상금은 3억 원이다.

의료봉사상에는 19년간 생활환경이 열악한 파키스탄 사막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세우고 인술을 실천해온 민형래 원장(54)이 선정됐다. 사회복지상에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우고 84년간 소외계층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대표 박지숙 마리인덕 수녀)이 선정됐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복지상 상금은 각각 1억 원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방탄소년단, 그래미도 보인다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내년 2월1일 시상식

"막상 후보 오르니 수상 욕심 생겨" 美 3대 음악상 그래미슬램 가시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수상 후보에 올랐다. 그래미에서 수상 후보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다.

25일 새벽(한국시간)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방탄소년단이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로 노미네이트됐다고 밝혔다. 4대 본상이 아니라 장르 부문에 해당하지만, 그래미의 중요한 부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레코딩 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1959년부터 주최해온 시상식으로, 백인 중심적인 보수적 성향의 시상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4년 연속 수상해 그래미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래미 슬램'을 이루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된 후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후보에 오르니 수상 욕심도 생기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신기하고 감격스럽다"며 "노미네이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미 여러분께 감사하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다. 팬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더 기쁘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제이 발빈·두아 리파·매드 베니&테이나의 '언 디아', 저스틴 비버와 퀘이보의 '인텐션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의 '엑사일'과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트로피를 두고 겨룬다.

지난 8월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는 디스코 팝 장르의 싱글로 한국 가요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한국시간) 개최된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후보로 오르면서 단독 무대를 선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에 민흥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제5대 이사장에 민흥기 이사(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민 신임 이사장은 희망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회 및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 등으로 활동 중이며, 국무총리 조정위원회 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조인이자 경제분야 법률전문가다.

한편 희망재단은 2014년 설립된 순수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다. 소상공인 전문 교육공간 점프업허브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및 경영 활성화 교육, O2O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티몬, 재무부부장·부사장으로 빅히트 출신 전인천 CFO 영입

국내 최초 타임커머스 티몬은 신임 재무부부장 부사장에 전인천 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인천 부사장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에이디티캡스(ADT캡스) CFO를, 영실업의 CFO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편, 티몬은 4월 대우미래에셋증권에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2021년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인사

- ◆여성가족부 ◇국장급 신규 임용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 임명 △관리본부장(경영부사장, 디지털혁신추진단장 겸직) 박상형 ◇보직 이동 △고리원자력본부장 박인식 △월성원자력본부장 원흥대 △한울원자력본부장 박범수 △새울원자력본부장 이상민
- ◆미래에셋생명 ◇본부장 선임 △GA 영업2부문 영업2본부 황문규 △방카영업1부문 영업2본부 이정완 △법인영업1본부 김병석 △VIP영업본부 이진명 △고객서비스본부 이후민 △디지털혁신본부 최진혁 ◇본부장 전보 △FC지원본부 차승렬 △GA영업2부문 영업1본부 이권석 △방카영업2부문 영업2본부 김수진 △계약관리본부 우지희
- ◆LG디스플레이 ◇전무 승진 △김희연 BID/IR 담당 △이진규 업무혁신그룹장 △

이현우 TV 운영혁신그룹장 ◇상무 신규 선임 △강원석 TV 상품기획담당 △권재영 IT 전략/마케팅담당 △김기영 Mobile 고객/품질담당 △김승도 난장법안장 △김흥수 Mobile 공적개발담당 △박환우 Mobile 영업그룹 Mobile1담당 △배성준 OLED TV Panel 개발담당 △백지호 OLED Cell 연구/개발담당 △송유진 노경담당 △안상현 Auto 영업담당 △윤원근 IT 제품개발1담당 △이병승 SCM Process Innovation 담당 △이해원 생산기술담당 △전종석 IT 영업/마케팅그룹 IT2담당 △최인관 Mobile Module 기술담당 △최훈 제품기술담당

◆티맥스 ◇사장 △티맥스소프트 법무감 사실장 황성택 ◇부사장 △티맥스소프트 글로벌사업부 대표 김익수 △ 2사업부장 이형용 △티맥스소프트 1사업부장 이상철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이현욱 ◇전무 △티맥스그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송영섭 △ 〃 기획조정실 디지털 마케팅 사업팀장 김민석 △티맥스소프트 글로벌 제품사

업본부장 라종필 △ 〃 제품사업본부장 박정권 △ 〃 1사업본부장 황성호 △티맥스제로 연구본부장 박상영 △티맥스클라우드 사업본부장 남민용 △티맥스에이아이 제품사업본부장 김성중 ◇상무 △티맥스소프트 PS 기술부장 설희수 △ 〃 전략혁신실장 이상욱 △티맥스제로 1사업본부 2사업부장 김서규 △티비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이현아 ◇상무부 △티맥스소프트 1사업본부 2사업부장 김혁철 △ 〃 CS실장 양범모 △ 〃 연구본부장 장우성 △ 〃 미국법인 COO 장원익 △티맥스제로 3사업본부 2사업부장 진규성 △ 〃 PS 2기술부장 최재석 △티맥스비아이 사업본부 1사업부장 심훈 △티맥스클라우드 사업본부 2사업부장 위재상 △티맥스오피스 사업본부 1사업부장 고찬영 △티맥스페이스 연구본부장 양동희 △티맥스에이아이 AF 연구본부장 한이람 △ 〃 AE 연구본부장 황창호 △티비인컨설팅 컨설팅사업본부 황정호

◆위메프 ◇임원 승진 △이사 정상모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백신 공정성,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백신의 면역력은 곧 공공재라는데 새삼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이 백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보건 방역에 취약한 빈국은 백신 확보 협상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비교적 안정세였던 한국까지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회복 국면을 맞던 세계 경제는 또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 년 가까이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위축으로 인해 세계는 전 지구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하게도 공평하고 신속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북반구와 남반구,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급속 전파되었다. 하지만 국제보건협력 내에 등록된 주요 전염병 중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도가 높더라도 지역 간 전파도가 낮은 전염병은 오히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투어 해결하려는 모습과 상반된다. 다시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어쩌면 코로나의 놀라운 파급력과 확산성으로 인해 보건영역에서 좀처럼 확보하기 어려운 '공정성'이 정립될 수 있을지 모른다.

급을 위해 설립된 다국가 연합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빈국의 백신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COVAX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코로나 백신 확산과 공정한 접근성을 위해 조직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노경아의 라온 누리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그 음식을 떠올리면 푸근해진다. 마음에 안정을 주니 '위로의 음식'이다. 코끝 찡한 기억에 빠져들게 하니 '추억의 음식'이다.

추억의 음식, 위로의 음식

에 소주 한잔하고 싶은데... 그저 세월이 아삭할 뿐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1970-80년대 강원도 산골마을에선 양미리가 든든한 겨울 양식이었다. 저녁이면 동네에 양미리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도루묵은 연탄불에 구운 것보다 찌개로 먹는 게 더 맛있다. 무를 깔고 알이 가득 밴 도루묵을 올린 후 고추장, 고춧가루를 푼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 청양고추를 넉넉히 넣으면 얼큰한 맛이 기가 막힌다.

선조가 아닐 수도 있다. 1904년 4월 9일자 황성신문에는 인조로 나온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은 '성서부부고' 도문대작에 "목어를 좋아했던 고려왕이 이름을 은어로 했다가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고쳤다가 하여 환목어라 한다"고 썼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찰스 솔츠 명언 "행복이란 포근한 강아지 한 마리다." 미국의 만화가. 텔레비전과 연극, 영화로도 제작된 연재만화 '피너츠'의 작가. 주인공 찰리 브라운은 솔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창조된 인물로 고독과 일상생활의 불만을 표현하였다. 오늘 그는 태어났다. 1922-2000.

"오늘날 '기업 국경'을 따지는 건 뒤떨어진 발상이다." '외국계 기업의 도 넘은 행태' 기사가 나간 뒤 기업 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이다. 동의한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업의 정당성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함께 할 때 갖출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의 '탈세'는 곧 국가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다.

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자문료로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적자를 냈고 법인세 납부 없이 미국 본사에 국내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다.

의혹을 받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금융 세계화가 본격화한 이후,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탈세가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한다.

☆ 시사상식 / 지식의 저주(The Curse of Knowledge) 사람이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수준에 기대어 일반인의 수준을 예단하게 되고, 나름 쉽게 설명한 것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만

유혜림 자본시장부/wiseforest@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우리가 철학에서 배울 것들

스무 살 무렵 피의 본성인 듯 시와 철학에 이끌렸다. 무지몽매와 혼돈으로 허우적하던 나! 순진무구했던 나는 철학책에서 필요한 것을, 무엇보다도 죽음의 약동하는 피를 수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분명하다. 그랬으니 틈만 나면 헌책방을 순례하며 시집과 철학 책을 구해다 읽고, 시립도서관에 처박혀 늘 먼 곳을 동경하며 하염없이 책읽기에 빠져들었다. 철학은 왜 중요할까?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생각하는 존재, 의미의 존재, 오성의 존재로 다시 살게 한다. 삶이 생각, 의미, 오성에 의해 이끌릴 때 무지와 소외와 광기에 매몰된 존재에서 벗어나는 계기적 잘나와 마주친다. 지금까지 철학자는 세계의 해석자이자 발견자,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가다. 생각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시공을 활공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다. 나는 철학을 향한 관심과 지속적인 독서가 영향을 끼치고, 삶의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믿는다.

노동이 전투가 되고 너희들이 누리는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바란다.” 니체는 훌륭한 명분이 전쟁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쟁이 모든 명분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더 나아가 자기 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가까이 전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의 철학은 벼락처럼 내 뇌에 꽂혔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전쟁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사는 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가 아니라 승리를 갈망하라”고 말하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며 나는 여러 번 탄식을 했다. 니체의 책들이 굽주린 짐승처럼 그를

이 건네주는 황홀과 도취 속에서 부정의 정신에서 긍정의 정신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어느 순간 삶의 얽힌 매듭들이 주르륵 풀렸다. 나는 더는 삶을 버거워하며 우울감에 빠지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우리는 지구라는 낯선 별에 온 이방인들이다. 이방인이라고? 그렇다. 본디 여기 태생이 아니라 저기 먼 곳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 이방인은 이곳과 저곳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방인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사이’를 실존의 감각으로 체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은 안에 있는 동시에 밖에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문턱에 있는 것이다.”(니콜 라피에르) 아무 소속이 없이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미궁 속을 헤매는” 자들. 그들은 자주 길을 잃으며 지리를 낮설어하며 어리둥절한다. 불가피하게 주변인, 디아스포라, 망명자로 살 운명을 받은 이방인에게 이 세계는 온통 낯선 것 투성이다. 환경의 낯설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그들이 낯선 세상을 살기 위해 붓다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 나는 우연히도 니체라는 서양의 붓다를 만났다. 유럽의 가장 독립적인 정신이던 니체는 자기를 “유럽의 붓다”라고 했다. 니체는 붓다의 불성(佛性)을 선함으로 이해하고 제 안에 체화시킨 철학자다.

한 번 존재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있는 삶은 또다시 되풀이하며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니체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웃는 법, 춤추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고향을 떠나 사는 법, 고독을 견디는 법... 철학은 우리 안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고 가장 높은 사유로 솟아오르게 하는 촉매다.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분기한다.”

렁거리는 인식욕을 채워주는 한편 내 절박한 내적 필요에 응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니체와의 만남은 운명이 된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20대 때 나는 광대의 역할을 떨치고 일어나 사자의 심장을 갖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일에 대한 열정으로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꾸려 건사하며 자식을 낳아 길렀다. 물론 그건 작은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늘 침울하고 자신감이 없던 청년이 나약함을 떨치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치면서 도약한 데는 니체 철학의 좋은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다. 니체는 평생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떠돌았다. 니체는 고산 지대와 호수, 그리고 지중해를 좋아했다. 그의 철학은 어떤 면에서 장소의 철학이자 기후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니체는 자기를 “방랑하는 자이자 산을 오르는 자”라고 규정한다. 니체는 “나는 너의 미로다”라고 말한다. 나는 철학의 미로를 헤매었다. 니체 철학의 정수를 정신없이 들이키며 철학

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는 니체의 영원회귀 철학과 붓다의 만물이 윤회한다는 사상은 닮았다. 존재의 끝과 시작은 하나의 원처럼 맞닿아 있다. 시작되는 것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 “나 자신이 영원회귀의 여러 원인에 속해 있으니”라고, “나는 더없이 큰 것에서나 더없이 작은 것에서나 같은, 그리고 동일한 생명으로 영원히 되돌아오는 것이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하나의 긍정으로 받아들였지만 붓다는 윤회를 괴로움으로 이해했다. 붓다는 수행의 결과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지만 붓다와 니체의 사상은 닮았다.

거듭 말하지만, 환자이자 의사이고, 붓다이자 명민한 제자인 니체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웃는 법, 춤추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고향을 떠나 사는 법, 고독을 견디는 법, 병(病)이라는 불안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법, 낙타처럼 순응하는 인간이 되지 않고 사자처럼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놀이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기쁨을 얻는 법을 배웠다. 철학은 우리 안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고 가장 높은 사유로 솟아오르게 하는 촉매다.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분기한다.” 이제 철학이 한 인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한 철학자의 사유가 내 삶과 사유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대해 써야 할 때가 왔다.



시와 철학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다. 가장 좋은 시인은 가장 훌륭한 철학자이고, 가장 좋은 철학자는 가장 훌륭한 시인이다. 둘은 오성(悟性)을 향하는 길에서 방법론적 차이를 가질 뿐 한 혈통이다. 시는 ‘상상력’을, 철학은 ‘사유’를 방법론적 매개로 삼는다. 시는 자명함을 배제함으로써 자명함에 닿고, 철학은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의미에 닿는다. 철학자는 생각이라는 섬광에 기대어 세계와 존재를 직관한다. 철학자는 머리를 짜내서 ‘정리(定理)’를 세우고, ‘명제’를 제시하고, ‘정리’와 ‘명제’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철학은 서로 마주칠 수 없는 것들을 접목하고, 그 내부로 삼투하며, 상호적으로 융합하는 사유의 방식! 철학은 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사유 그 자체에서 바글거리며 발현된다. 철학은 자명한 것, 즉 상식, 대화, 지혜 너머로 나아가려는 사유의 도약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라 빛을 내는 행위이고, 논쟁술이 아니라 사유의 약동이고 도약술이다. 이때 사유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유의 내용이란 늘 사유의 형식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오로지 생각함에서 치르는 사유의 전쟁이고 도약이다.

내 인생 최초의 철학책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다. 삶이라는 야전(野戰)에서 유격전을 벌이는 병사이자, 적진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척후병이었던 철학자 니체는 철학과 전쟁을 동일시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전쟁을 “거룩한 과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적 사유의 전쟁, 도처에 숨은 적들과의 전쟁, 거짓이나 우상과의 전쟁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를 들고 우상을 깨는 철학자라고 소개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생”을 사랑하는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전투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너희들이 하는

시설

수십조 세금 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지,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서둘러 가덕도로 뚫박고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노골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들고 나왔다.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으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신공항에 반발하는 대구·경북 여론을 무마하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정치논리로 그동안 건설된 지방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뿐이고, 나머지 11곳은 해마다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다수 지방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원주·사천·군산·포항·무안 공항 등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컸지만, 올해 활주로 이용률이 1% 미만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 처음부터 면밀한 수요예측 등 경제적 검토 없이, 선심성 퍼주기식 지역사업으로 공항을 건설한 탓이다. 그런데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공항 건설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인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거를 앞둔 정략적 표계산에만 빠져 나라살림이 엉망이 되는 건 전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고, 세금 낭비는 미래 세대를 더 허리 휘게 만든다. 잘못된 신공항 특별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한 컷



거리두기 2단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이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모두 경각심을 갖고 거리두기에 협조해야 한다.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한 카페의 의자가 치워져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왜 삼성화재 RC가 당신에게 좋은 RC일까요?

24시간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답을 드리고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RC
당신에게 좋은 RC를 지금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삼성화재 RC만의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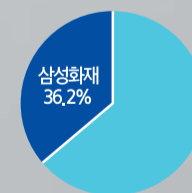


보험정보 제공 보장 분석 상품 가입 보험 관리 보험금 청구

고객 서비스로 쌓은 신뢰 우수인증설계사수 1위

장기유지계약, 장기근속, 신뢰도 평가 등으로
선정되는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20년 우수인증 설계사 중
삼성화재 비율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